

SBS magazine

www.sbs.co.kr

커버스토리 <불량주부> 신애라

새 드라마 드라마스페셜 <건빵선생과 별사탕>

금요드라마 <꽃보다 여자>

프로그램 <한수진의 선데이클릭>

<퀴즈쇼 최강남녀>

초점 대하드라마 <토지> 오픈세트를 찾아서



04 + 2005 + April + Vol.161

06



절대무공 엽기발랄
그녀가 돌아왔다!

새 드라마 / 드라마스페셜 <건빵선생과 별사탕>

<건빵선생과 별사탕>은 제목에서 상상할 수 있듯, 한 고등학교를 무대로 교사와 학생이 한 판 대결(?) 을 벌이는 엽기발랄 청춘 학원물이다. 여선생과 남제자의 티격태격 줄다리기를 가운데 두고 그와 그녀의 라이벌들이 펼쳐가는 대단한 소동과 가슴 짙은 로맨스를 경쾌한 터치로 그려간다.

26



그 시절 그대로,
마치 그 거리에 들어선듯

초점 / 광복60년 대하드라마 <토지> 오픈세트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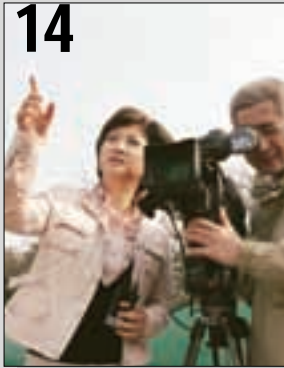
잘 만들어진 드라마의 배경은 드라마에 빠져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건이다. 강원도 황성군 두곡리에 마련된 대하드라마 <토지>의 오픈세트엔 그 시절 국권을 빼앗기고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떠돌던 우리 민족의 터전들이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되어 드라마의 인기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6 드라마스페셜 <건빵선생과 별사탕>
절대무공 엽기발랄 그녀가 돌아왔다!

12 금요드라마 <꽃보다 여자>
여자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죠

14 시사인터뷰 <한수진의 선데이클릭>
누구든지 어디든지, 만나야 한다면 간다

18 신개념 퀴즈쇼 <퀴즈쇼 최강남녀>
신개념



14



18



38



22



42



44

14 시사인터뷰 <한수진의 선데이클럽>

18 신개념 퀴즈쇼 <퀴즈쇼 최강남녀>

22 불매산파 프로농구 사상 첫 15연승 기록한 SBS 스타즈 농구단

38 카바스토티 <불량주부> 신애라

42 스포트라이프 <그린로즈> 이종혁

44 주연 유경미 아나운서

48 <이숙영의 파워FM> 3천회 기념 도교 특집방송
'굿모닝 도교'가 '굿바이 도교' 될 뻔했던 사연

50 은지함의 음악풍경
노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52 김수현의 공연산책
내 인생의 3악장은 조국에서

54 잘먹고 잘사는 법 / 맛있는 리서치
문 앞에 봄이 온 것을 입맛이 먼저 알더라

56 SBS 스포츠채널 /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최우수 고교대회 독점 중계
대한민국 고교야구, 그 진정한 왕중왕을 찾아서

58 SBS 미디어넷 하이라이트
골프채널 · 스포츠채널 · 드라마플러스

59 클럽! 인터넷
727 멤버십 & SBSi 소식

62 4월의 SBS 영화
SBS 영화특급 & 특선영화

64 TV & 라디오 편성표
4월의 SBS 주간 편성

67 시청자가 주인입니다
특별기획 <그린로즈>를 보고

68 시그널
이 달의 SBS 소식

월간 (SBS 매거진) 2005년 4월호(통권 161호)

· 발행처 | 주식회사 SBS(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 대표전화 02-2061-0006) · 발행일 | 2005년 4월 1일 · 발행 및 편집인 | 안국정 · 주간 | 이남기 · 부주간 | 박종필
· 기획 | 최애라 · 신선화 · 사진 | 서창식 · 조광희 · 김연식 · 편집 및 제작 | 보빙사(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4-13 · 전화 02-548-0301) · 출력 | 이수그래픽 · 인쇄 | 제일 P&D(031-957-9600)
· <SBS 매거진>은 인터넷(www.sbs.co.kr)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주식회사 SBS의 동의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Drama Special | 드라마스페셜 <명랑·순정·학원·로망 **건빵선생** 과 별사탕>

극본 / 박계옥

연출 / 오종록·김형식

제작 / 싸이더스 HQ

출연 / 공효진·공유·최여진·조형기·박인환·양금석 등

방송 / 4월 13일부터 수·목요일 밤 9시 55분



절대무공
엽기발랄,
그녀가 돌아왔다!

문제 청춘들의 학원별곡 최근 한 교사의 폭로로 학원 내 '일진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명랑·순정·학원·로망 건빵선생과 별사탕>이라는 긴 제목을 가진 이 드라마 역시 일진과 그 주변 패거리들의 소동을 통해 학원을 들여다본다. 문제 청춘들의 드라마인 셈. 게다가 그 청춘들과 맞장을 뜨는 시한폭탄 열혈교사가 등장하니...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선생!

이쯤 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나치게 희화화시키거나 말초적 재미로 포장하여 적당히 시류에 편승하려는 지각없는 드라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절대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사실 학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요, 따라서 오늘 내일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요즘 관계당국의 반응을 보면 단속이니 검거니 하며 마치 일거에 발본색원한다는 식으로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 한심하고 참으로 안쓰럽다. 혹시 학교의 문제아들을 학교 밖으로 썩 내쫓거나 격리시켜 버린다는 발상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병든 자식을 시끄럽다고 집밖으로 쫓아내는 꼴이 아닐까? 우등생 출신의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께서는 쫓겨난 그들이 일평생 우리 이웃과 사회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별 고민 없이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처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건빵선생과 별사탕>의 주인공들은 그런 근시안으로 보자면 모두 눈 밖에 난 인물들. 여주인공인 나보리(공효진 분)는 아버지가 갑자기 출가하고 엄마마저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바람에 저절로 결손가정의 소녀가장이 되어야 했던 인물. 거의 반강제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교사직에 지원한 사연 많은 여선생이다.



드라마스페셜 <명랑·순정·학원·로망 건빵선생과 별사탕>

SBBS의 새 드라마스페셜 <건빵선생과 별사탕>은 제목에서 상상할 수 있듯, 한 고등학교를 무대로 교사와 학생이 한 판 대결(?)을 벌이는 엽기발랄 청춘 학원물이다. 그런 구도라면 근래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고 또 이미 인기 만발했던 소재 인지라 지레 식상해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직접 보면 알 것. 하지만 그에 앞서 <건빵선생과 별사탕>의 비밀을 조금만 벗겨보자. 아마 같은 청춘물이라 해도 기존 TV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과 내용 전개로 보는 이의 허를 내두르게 만들 것이니. 그것도 아주 여러 번...

극본 / 박계옥

연출 / 오종록·김형식

제작 / 씨이더스 HQ

출연 / 공효진·공유·최여진·조형기·박인환·양금석 등

방송 / 4월 13일부터 수·목요일 밤 9시 55분

남자주인공 박태인(공유 분)은 얼짱, 몸짱, 주먹짱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하나, 부모의 이혼으로 일그러진 가정사 때문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문제학생. 이 여선생과 남제자의 티격태격 줄다리기를 가운데 두고 그와 그녀의 라이벌들이 펼쳐가는 대단한 소동과 가슴 찡한 로맨스를 경쾌한 터치로 그려갈 작품이 바로 드라마스페셜 <건빵선생 과 별사탕>이다.

때로는 과장되고 너무 요란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색안경을 끼지는 말자. 많이 아프면 아픈 만큼 질러대는 비명소리도 커지는 법이니까.

여선생과 남제자 평소에는 안전하다가도 열 받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초임 여선생 나보리. 그녀는 여고시절 인근 학교 일진 놈들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대든 적이 있다. 우연찮게도 바로 그 순간, 옆 공사장 진동에 폐건물의 담장이 무너지며 일진 놈들을 덮친다. 중상을 당한 놈들은 집단으로 진단서를 끊어 보리를 고소해 버리고, 경찰서에서 교무실로 인계된 그녀는 지도주임 동철환 선생(조형기 분)에게 집중 난타(?)를 당한다.

보리는 동철환 선생의 구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애비 없이 자란~”이란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더욱이 남몰래 사모하던 지현우 교생 선생이 보고 있는 앞에서였으니. 뚜껑 열린 그녀, 교무실 벽에 주먹을 박는다. 바로 그 순간, 또 한번 재수 없게도 교육현장 액자가 떨어지며 동 선생의 안면을 강타. 동 선생은 코뼈가 부러져 기절하고 결국 보리는 퇴학 처분을 받고 만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사실이다!

이후 그녀는 지현우 선생님의 배려에 감화되어 이를 악물고 정석고시에 도전, 마침내 사범대에 진학하여 교사자격증까지 움켜쥐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임시 교사의 자격으로 모교인 정석고에 재입성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그녀의 소문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알 수가 없다. “기합 소리만으로 동네 일진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장풍 한 방으로 악질 선생을 기절시킨 전설의 ‘썸썸’ 나보리가 선생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절대무공의 그녀가 어찌하여 종합격투기에라도 진출하지 않고 하필 선생이 되었던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뭔가 비밀임무를 띠고 학원가에 잠입한 요원일지도 모른다. 니키타처럼...

아닌 게 아니라 그녀에게 비밀임무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 임무란 바로 정석고 제일의 문제아로 최근 미국 유학 가서 잠시 쉬다 온 뒤 다시 일선에 복귀한 박태인과 관련된 일. 이 녀석은 일진을 자처하는 무더기들을 맨몸 단신으로 깨부수는 실력의 소유자인데 다 반항적 눈빛에 카리스마까지 듬뿍 담겨 있어 못 여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달고 다니는데. 문제는 이 터프가이가 그 전설적인 여선생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그와 그녀를 둘러싼 일대 파란은 불보듯 뻔하고, 임무수행에 차질이 생긴 나보리 선생은 난처하다. 과연 그녀의 비밀은?



Commander |

오종록 PD

<피아노>, <해피 투게더>, <줄리엣의 남자> 등 히트 드라마 제조기로 이름난 오종록 프로듀서. 특히 영화 <첫사랑 사수 궤기대회>로 충무로에서까지 성가를 올린 그가 오랜만에 SBS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았다.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이 고교를 무대로 한 <헬로 마이 티처>라니 조금은 뜻밖이다. 그로선 본격 청춘물에 처음 도전하는 셈이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박계옥 작가가 이미 영화 <강패수업>과 <짱> 등의 시나리오를 썼던 만큼 이 방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다지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물론 그간 연출한 작품마다 특유의 문학적 감수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사와 섬세한 감정 연출로 시청률과 작품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베테랑이기에 스스로 이번 작품에도 충분한 계산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터.

“빠른 템포와 과감한 장면연출로 풍부한 볼거리와 로맨틱한 코미디를 적절하게 섞어보려 합니다. 어른의 시각이 아닌 그들, 우리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의 시각에서 말이죠.”

흔히 고등학생 하면 아직도 애 취급하기 마련이지만, 분명히 그들만의 고민과 문화와 사랑이 존재하며,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의 청소년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그.

시류에 편승한 실없는 엽기발랄이 아닌, 그 속에 진정한 웃음과 감동이 묻어있는 ‘청춘 학원물’ 한 편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모두가 함께 즐기고 열성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말이다.



극본 / 박계욱

연출 / 오종록·김형식

제작 / 씨이더스 HQ

출연 / 공효진·공유·최여진·조형기·박인환·양금석 등

방송 / 4월 13일부터 수·목요일 밤 9시 55분

액션과 로맨스를 한 손에 씬짱의 전설을 안고 새로 부임한 여선생 나보리 역으로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돌아온 공효진. 사실 이 역에 그만한 적임자가 또 있을까? 똑 부러지게 연기 잘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확고히 갖춘 연기자로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종횡무진 누벼온 그가 아닌가.

이번 작품에선 어떤 이미지와 색깔로 팬들을 또 한번 사로잡을지 사뭇 기대된다. 척박하고 삭막한 학원의 현실 속에서 문제아들을 대하는 한 여교사의 문제적 행동이 단순한 엽기적 해프닝이 아닌 진한 웃음과 감동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의 능력에 달린 셈. 그간 여러 작품에서 보여준 다양한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돌아온 탕아 박태인 역은 공유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그 역시 SBS의 <스크린> 이후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것. 하지만 그간 스크린에서의 활약을 통해 이미 연기는 물오를 만큼 올랐다. 더구나 최근 영화 <잠복근무>에서도 고교생 역을 맡았던 터라 이번에도 그 여세를 이어 한층 확대 심화된(?) 문제아 역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혜인을 사랑하여 나보리 선생과 연적관계가 되는 리버럴한 왕따 여교생 노젤마 역에 최근 주가를 높이고 있는 최여진이 출연하여 흥미진진한 사랑과 우정의 실타래를 엮어간다. 또한 교장선생님에 박인환, 이사장에 양금석, 교감 역에 조형기 등 개성넘치는 중견 연기와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아직은 승부를 알 수 없지만, 모두 파이팅!

글 / 김진희_자유기고가 · 사진 / 서창석



Heroine |

공효진

〈건빵선생과 별사탕〉를 통해 약 1년 반 만에 안방극장의 문을 두드리는 공효진. 제법 오랜만의 출연이라 부담스런 마음도 있지만 실은 기대와 의욕이 더 앞선다고. 문득 거칠고 불량스러워 보이기도, 가도 역할 따라 순수하고 여린 속내를 보이기도 하는 팔색조 같은 그. 이번에 맡은 나보리의 캐릭터는 그 다양한 면모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이라 더욱 마음에 든다.

“극 초반엔 와이어 액션을 마다않는 월가닥 썸머로서의 면모를 한껏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리는 ‘첫사랑’의 애뜻함을 간직한 소녀이며, 또 후일 제자와의 미묘한 사랑에 당황하는 ‘여인’의 면모까지 보여주어야 하죠.”

이쯤 되면 내심 걱정스러울 만도 하지만 그는 자신만만하다. 그 자신감은 연기자로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또 연출자인 오종록 PD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기인한 것. 연기자의 능력과 연출자의 의도가 잘 조화를 이룬다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런 면에서 제 스스로도 이번 작품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커요. 밝고 경쾌한 톤의 드라마인 만큼 이전과는 또 다른 충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 변화된 모습을 살짝 귀땀해 달라고 하자 화면으로 확인하라며 한사코 숨기는 그. 과연 어떤 변신일지 벌써부터 궁금증이 인다.



• 우희진 (막동지 역)



• 최영란 (유정아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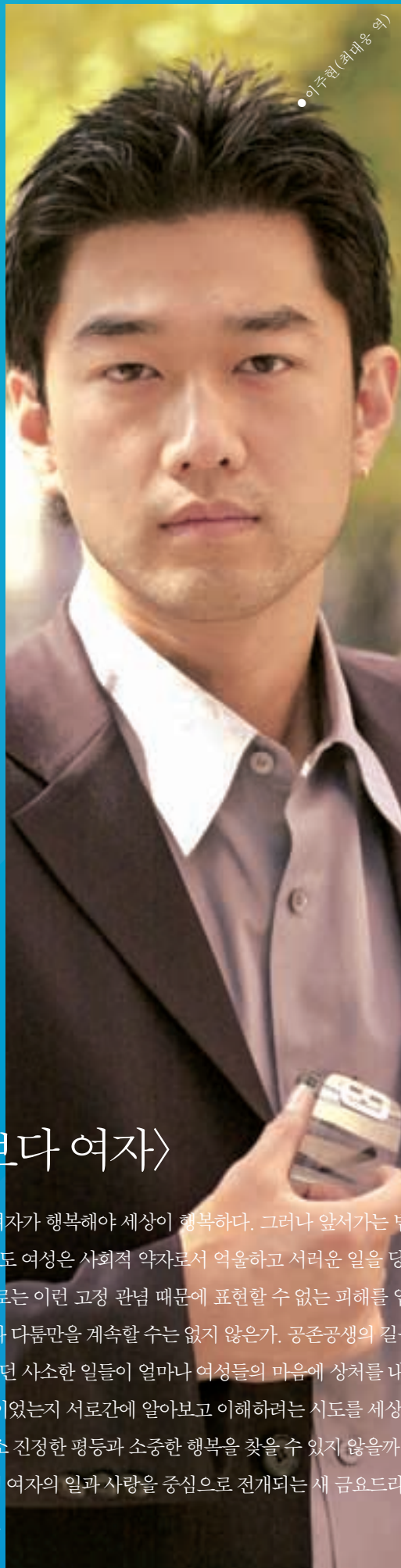
• 김민희 (진개현 역)



여자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죠



● 김영호 (윤상원 역)



● 이주현 (권대용 역)

주본 / 허숙
연출 / 배태섭 · 김정민
출연 / 우희진 · 최명길 · 김민희 · 김영호 · 이주현 등
방송 / 4월 22일부터 금요일 밤 9시 55분

금요드라마 <꽃보다 여자>

세상의 절반은 여자다. 그러므로 여자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 그러나 앞서가는 법과 제도의 그늘에서 고정 관념과 오랜 세월 묵어온 습관 또는 편견 때문에 아직도 여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상대적 강자로 인식되어 온 남성들도 때로는 이런 고정 관념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서로 반대의 성(性)을 상대로 반목과 다툼만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존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세상살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왔던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이쁨을 주었는지, 또 남성들은 미처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던 대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서로간에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세상의 남녀는 과연 얼마나 해왔을까? 각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등과 소중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각기 다른 가치관과 개성을 가진 세 여자의 일과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 금요드라마 <꽃보다 여자>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연출 / 송대현

진행 / 한수진

방송 / 일요일 아침 7시 50분



누구든지 어디든지,



찾아가는 인터뷰 〈한수진의 선데이클릭〉은 한 주일을 마감하는 일요일 아침, TV 앞에 앉은 시청자들을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안내한다.

〈한수진의 선데이클릭〉은 건조하게 장식된 스튜디오에 명사들을 초청해 근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니다. TV 속의 한수진 기자는 시청자들도 숨이 찰 만큼 끊임없이 걷고, 뛰고, 이야기한다. 이슈가 있는 현장 속으로, 이슈의 중심에서 있는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형식의 인터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1회에 방송됐던 배우이자 국민참여연대의장 명계남 씨를 만나기 위해 한 기자는 그가 대표로 있는 이스트 필름 사무실을 찾아갔다. 2회 서강대 장영희 교수의 인터뷰는 그가 2년간의 투병생활을 마치고 다시 선 강단,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됐다. 세 번째 출연자였던 지울 스님의 경우는 더욱 많은 공을 들여야 했다. 한수진 기자는 그가 기거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의 천성산 암자를 찾아 사흘간을 그와 함께 보내며 그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한수진의 선데이클릭〉

만나야 한다면 간다

반가운 얼굴이다. 지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매일 저녁 〈SBS 8 뉴스〉를 진행했던 한수진 기자가 3년여 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 〈한수진의 선데이클릭〉으로 매주 일요일 아침 시청자들을 찾고 있다. 푹 떨어지는 외모에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국내 최장수 여성 메인 앵커’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그가 그동안의 방송경험을 통해 쌓인 ‘내공’을 맘껏 펼쳐 보이는 프로그램이라 더욱 기대가 크다.

주인공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단지 ‘예의’ 차원이 아니다. 친근한 공간 속에 있는 인물들은 대중에게 알려진 것 외에도 평소 생활 속 자연스러운 모습과 생각을 드러내기 마련. 어쩌면 인터뷰 대상을 자신도 모르게 무장해제 시키고,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1090 인터뷰 이슈의 중심에서 있는 인물들을 고르다보니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섭외다. 만날 인물을 결정하고 나면 한수진 기자를 포함한 3명의 기자, 2명의 메인작가 등 제작진은 섭외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섭외가 순탄치 않을 경우,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한수진 기자가 취재대상을 무작정 방문하기도 한다. “막무가내식 방법이지만 꽤 효과가 좋다”는 게 제작진들의 귀뜸. 이런 지난한 섭외과정을 통해 제작진은 100일 단식을 끝낸 후 언론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칩거해있는 지울 스님을 독점 인터뷰하는 데도 성공했다.

〈한수진의 선데이클릭〉이 찾아가는 대상에는 경계가 없다. 제작진들은 ‘1090 인터뷰’라는 표현을 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미담의 주인공까지, 한국 사회의 중심인물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 구석의 소외된 인물들까지 어디든 찾아가 만나겠다는 의지다. 10대에서 90대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인 등 직종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 외국인 등 국적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인물이면 누구든 출연 가능. 이것이 인물선정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원칙이다.

칭찬도 비판도 달게 받는다 ‘이야기가 되는’ 민감한 인물들을 다루다보니 당연히 ‘균형감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명계남 씨를 만났을 때, ‘개발이나 환경이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지울 스님을 인터뷰했을 때, 시청자들의 칭찬과 비판이 동시에 거세게 일었다. 그들의 진솔한 속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의견과 함께, ‘편파적인 방송이다’ 라는 비난도 들려왔던 것. 그러나 방송을 꼼꼼히 살펴보면, 제작진이 ‘균형잡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명계남 씨 인터뷰의 경우,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그 중에는 “연기나 하라”던가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쓴 소리를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런 인터뷰 내용을 인터뷰이에게 직접 들려주며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진행방식 또한 꼭 흥미진진하다.

지울스님 편에서도 제작진은 동시에 지울스님의 주장과 대치점에 서 있는 고속철도시설공단 측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고속철도 공사가 어떻게 천성산의 환경을 파괴하는가에 대한 지울스님의 설명과 함께 최신 보정기법을 사용한 고속철도 공사가 지하수 유출이나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공단측의 주장도 함께 방송됐다. 또한 고속철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입장에 따른 가치의 충돌을 보여주면서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나 40분 동안 한 인물을 조명하는 형식의 한계상 어느 정도 인물 PR의 성격을 떨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작진의 고민.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인터뷰어의 역할이다. 인터뷰어는 때로는 대중의 입장에서, 때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상대편 토론자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이끌어가야 한다. 인터뷰 대상의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지, 자신에 대한 변명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파헤쳐야 하는 것이 관건.

지울스님에게도 “3개월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가 스님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겠느냐”, “사회의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법의 원칙을 무시하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는 예리하면서도 불편한 질문이 던져졌던 것. 이런 민감한 질문들을 통해 한수진 기자는 “진실에 기반한 결과가 나온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다시, 단식은 안 하고 싶다”는 등의 솔직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아직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 밖에 안 된 <한수진의 선데이클릭>은 지금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시청자들은 자칫 헛갈릴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인터뷰 프로그램이다가, 개개인의 일상사를 보여줄 땐 ‘인간극장’ 같기도 하다. 논쟁의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땐 일종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분위기로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보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작진의 노력이자 의도된 바이기도 하다. ‘고정된 형식이 없는 하나의 생물체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작진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바바라 윌터스, 오리아나 팔라치 등 해외에는 핵심을 찌르는 명 인터뷰로 이름을 날린 여성 저널리스트가 여럿 있다.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하던 ‘든든한 앵커’ 한수진, 이제 그에게 그들을 넘어서는 활약을 기대할 차례다.

글 / 이영민 자유기고가 · 사진 / 조광희

The Interviewer |

한수진 기자

현재 보도국 보도제작 1부에 소속된 한수진 기자는 <한수진의 선데이클릭>을 맡은 후 더욱 바빠졌다. 이슈가 있는 현장을 ‘찾아헤메다’ 보니 일주일에 3~4일을 지방에서 보내기도 한다. 그래도 그는 “현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땀 흘려서 생겼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나”며 환히 웃는다.

- 이름을 내건 방송이라 부담이 크겠다.

“사실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겁없이 뛰어들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나 생각하면 행복하다.”

- ‘찾아가는 인터뷰’라는 형식을 선택한 이유는?

“게스트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40분 내내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고, 게스트에 대한 칭찬만 늘어놓다 끝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상대방 역시 대단한 미인도 아닌 나를 내내 쳐다보고 있는 것이 힘들테고(웃음). 현장도 있고, 때론 자연도 있는, 다채로운 느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었다. 아직은 시청자들에게도 낯설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 그간의 방송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인터뷰 대상자들을 무장해제 시키려면 나 자신이 상당한 ‘교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단조로운 기본기의 무공만 보여주는 수준인 것 같아 걱정이 많다.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연출 / 유은재
진행 / 박수홍
방송 / 토요일 오후 5시

신개념

동서양을 막론하고 퀴즈 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를 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퀴즈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물질적 보상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막강한 소구력을 발휘한다. 여기에 실력과 운의 절묘한 결합이 리드나 공평한 참여 기회, 시청자의 개입을 충동질하는 쌍방향성, 교육적인 효과 등 다양한 '흥행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장르일 수밖에 없다. 퀴즈 프로그램은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생명력을 키워왔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기 위해 제작진들은 머리를 싸매고 늘 새로운 뭔가를 쫓았다. '변화'가 21세기 화두인 지금,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하는 SBS TV <퀴즈쇼 최강남녀>는 트렌드의 변화와 프로그램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커플퀴즈 리얼 로망스가 떴다!

〈퀴즈쇼 최강남녀〉



연출 / 유윤재
 진행 / 박수홍
 방송 / 토요일 오후 5시



퀴즈도 풀고 내 짝도 만나고

<퀴즈쇼 최강남녀>는 작년 6월께 대강의 밑그림이 기획된 뒤 지난 2월 설날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전파를 타고 3월 5일부터 정규 편성됐다. '신개념 커플 퀴즈 리얼 로맨스'를 표방하고 있는 <퀴즈쇼 최강남녀>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퀴즈 풀이의 재미와 짧은 남녀의 짝짓기를 결합시킨 독특한 형식이다.

서로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남녀 8명이 1라운드 '개인 퀴즈'를 통해 서로를 탐색하면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어 '파트너 선택 퀴즈'를 맞는 순서대로 짝을 이룰 파트너를 선택한 후 2라운드 '커플 퀴즈'를 진행한다. 파트너의 팀워크를 중시해온 기존의 퀴즈 프로그램과는 사뭇 다른 포맷이다.

여기에 <퀴즈쇼 최강남녀>의 첫번째 묘미가 있다. 애초부터 파트너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력을 확인한 뒤 함께 하고픈 이성 파트너를 선택하는 '개인 퀴즈'의 형식은 퀴즈 풀이의 긴장감 외에 청춘남녀의 짝짓기(?) 과정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커플들의 대결로 펼쳐지는 '커플 퀴즈'는 남녀 커플의 합산 점수로 최종 우승팀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승 커플은 다음 회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연승 횟수는 무제한이

며 여행문화상품권으로 주어지는 상금은 '최종점수×1만원'으로 계산된다. 2라운드에는 '체인징 파트너'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커플 체인지'라는 조건이 붙은 문제가 수시로 제시되고, 이를 맞는 출연자는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것이 <퀴즈쇼 최강남녀>의 두번째 묘미다. '커플 체인지' 문제를 맞춰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 출연자는 잠깐 동안이나마 고민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문제를 풀면서 다져온 의리와 정을 생각해 지금의 파트너를 그냥 지킬 것인지, '염불보다는 잣밥에 관심이 많다'는 본색(?)을 과감하게 드러내 점수보다는 호감이 더 가는 파트너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가장 높은 점수의 실력자를 데려와 우승의 축배를 들 것인지 등...

엔터테인먼트와 오락의 만남 유윤재 PD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처음부터 스타트가 늦은 사람은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다면 재미없을 것이다.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잡느냐 혹은 놓치느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역전이 가능한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다. 끝까지 우승이 가능한 <퀴즈쇼 최강남녀>는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퀴즈쇼'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최강남녀'의 리얼리티가 절묘하게 결합



- 개그맨으로서 퀴즈 프로그램 MC를 맡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는 유운재 PD의 선택에 나 자신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겁지지는 않았다. 내게 맞는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점, 커플로 우승팀을 가리는 형식, 중간중간 커플이 바뀌는 것 등 정통 퀴즈 프로그램의 성격 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많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 퀴즈 프로그램은 출연자와 진행자 사이의 호흡이 중요할 것 같다. 더구나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출연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 오후에 녹화를 하는데 꼭 한 두 시간 전에 현장에 와서 대학생들과 호흡을 맞춰본다. 방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칫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 긴장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거꾸로 출연 학생들이 재치있는 코멘트로 나를 편안하게 풀어주기도 한다."

- <퀴즈쇼 최강남녀>의 진행자로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늘 부족하다. 특히 출연자의 대답을 재차 확인하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매끄럽게 정리해줘야 하는데 1, 2회 방송 때 그런 부분이 서툴렀던 것 같다."

된 형식이 바로 <퀴즈쇼 최강남녀>의 원동력이라 매력인 것.

<퀴즈쇼 최강남녀>의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는 매주 200여명에 이르는 남녀 대학생들이 출연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자동출전하는 전주의 우승 커플을 빼면 매주 남녀 3명씩 6명만이 출연 자격을 얻기 때문에 경쟁률은 꽤 높다. 제작진은 인터넷 응모와 20문제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예심을 통해 성적순으로 10여명을 뽑는다. 그리고 남녀 성비와 출신 대학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대학교 출신의 남녀 4명씩 모두 8명이 정해진다.

'개인 퀴즈'는 일반적인 상식 문제가 출제되며 '커플 퀴즈'는 매주 특정한 주제 - 예를 들어 1회 '왕조의 역사가 살아있는 건축물', 2회 '영화 속 역사적인 교통수단', 3회 '세계의 정복자들' - 를 정해 그것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푸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커플 퀴즈'의 주제는 한 주 전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출연 예정자들은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문제 출제는 MBC <퀴즈 아카데미>에서 서울대 동양사학과 모임인 '자하연' 멤버로 활약한 바 있는 김경림 작가를 비롯해 6명의

작가와 대학원생 등 출제 전문 요원 4명, 총 10여 명이 맡는다. 이들은 매주 3~4일동안 고심을 거듭해 '문제 뱅크'를 만들고, 이곳에서 그 주에 출제할 퀴즈들을 엄선한다.

스릴과 반전, 그리고 로맨스 <퀴즈쇼 최강남녀>는 진행자 선택에서도 파격을 택했다. 퀴즈 프로그램은 으레 아나운서가 맡는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린 것이다. 그런 제작진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박수홍은 출연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화술과 위트로 프로그램의 흐름의 완급과 긴장감을 조절해주고 있다.

<최고의 밥상>, <진실게임>, <콜롬버스 대발견>에 이어 네 번째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유운재 PD와 김경림 작가의 찰떡궁합도 이 프로그램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다. 유 PD는 "적당한 스릴과 반전이 있고, 젊은 남녀의 풋풋한 매력과 로맨스(?) 등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 / 김정연 자유기고가 · 사진 / 김연석



SBS 스타즈 농구단, 불패신화 이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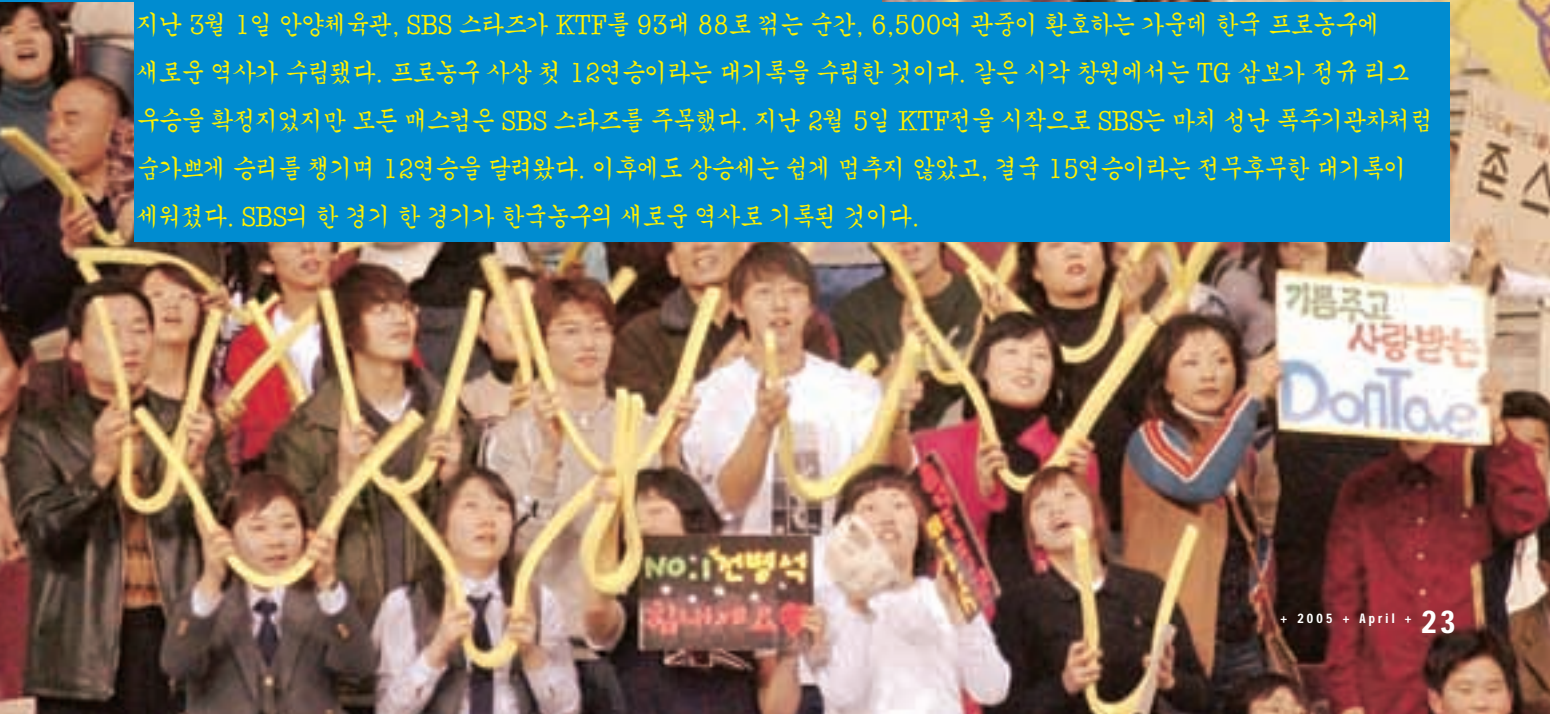
한국 프로농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던 날

지난 3월 1일 안양체육관, SBS 스타즈가 KTF를 93대 88로 꺾는 순간, 6,500여 관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한국 프로농구에 새로운 역사가 수립됐다. 프로농구 사상 첫 1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같은 시각 창원에서는 TG 삼보가 정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지만 모든 매스컴은 SBS 스타즈를 주목했다. 지난 2월 5일 KTF전을 시작으로 SBS는 마치 성난 폭주기관차처럼 습기쁘게 승리를 챙기며 12연승을 달려왔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쉽게 멈추지 않았고, 결국 15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세워졌다. SBS의 한 경기 한 경기가 한국농구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된 것이다.



전국을 강타한 '단테 신드롬' 달라진 SBS 스타즈. 역시 그 중심에는 단테 존스라는 괴물(?)용병이 있었다. 단테 존스가 합류한 날부터 SBS의 연승은 시작됐다.

단테가 팀에 합류하면서 김성철과 양희승, 이른바 '토종 쌍포'는 막강 위력을 과시했고 SBS는 무적군단으로 탈바꿈했다. 체육관 천정까지 튀어오를 것만 같은 점프력, 던지기만 하면 림에 꽂히는 슈팅능력. 그리고 한 박자 빠른 어시스트..., 마치 NBA 경기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단테는 농구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DJ' 라고 불리기도 하는 단테 존스가 일으킨 이른바 '단테 신드롬'은 축구천재 박주영 신드롬과 함께 전국을 강타했다. SBS 스타즈가 가는 곳이면 어느 경기장이나 단테 존스를 보기 위한 인파로 매진사례를 이뤘다. 특히 안양체육관 주변은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교통체증이 발생하는가 하면 압포상까지 등장했다. 안양체육관 앞에서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농구팬의 모습은 만년 중위권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지난 해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DJ는 진정한 프로 단테는 그동안 KBL을 거쳐간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는 확실히 다른 선수이다. 꼭 화려한 기량의 소유자이어서 뿐만이 아니다. 그가 보여주는 진정한 프로 정신에 팬들은 기쁨을 받고 사랑을 주고 있다.

단테는 항상 팬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 주변 사람들을 감탄시킨다. 돈을 내고 표를 사서 농구를 보러 오는 팬들에게 승리 이외에 무엇이라도 하나쯤은 즐거움을, 볼거리를 줘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어설피지만 리마리오춤을 코트 위에서 출수 있는 선수, 경기가 끝난 뒤 몰려든 관중을 외면하지 않고 30분이 넘도록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같이 사진을 찍어 주는, 어찌보면 너무나 순진해 보이는 외국인 선수. 우리 상상 이상의, 우리가 겪었던 눈높이 이상의 프로 선

S B S S T A R S



수가 바로 단테 존스인 것이다.

“성격이 정말 좋아요”, “경기의 흐름을 알아요. 정말 잘 해요”, “단테랑 농구하면 참 편해요”, “한마디로 분위기 메이커죠.” 이렇듯 동료들도 올시즌 SBS 스타즈 급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단테 존스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더 큰 결실을 향해 진군하기를 올 시즌 프로농구는 사상 처음으로 정규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하는 흥행 대박을 이뤘다. SBS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데 어느 농구인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재미있는 농구, 젊은 농구, 팬을 위한 농구, 올 시즌 안양 SBS 스타즈에 쏟아지고 있는 찬사들이다.

물론 주인공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지만 단테를 어렵게 영입해 탄탄한 골격을 만들고 떠난 전임 이충기 단장, 타고 난 추진력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신임 황호형 단장, 꺾은 일을 도맡아 하는 김선동 사무국장과 구단 식구들, 몸바쳐 응원하는 치어리더들, 이 모두가 주역들이다. 항상 노력하고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스타즈가 되길 기대해본다.

글 / 손근영 스포츠국 차장대우

In the Court |

김동광 SBS스타즈 감독

- 15연승 등 대기록 수립의 소감은?

“정말 기쁘다. 선수들과 프런트들에게 감사드린다. 팬들의 성원도 큰 힘이 됐다.”

- 대기록 달성이 가능했던 요인은?

“모두들 단테 존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농구는 5명이 하는 경기이다. 양희승, 김성철, 버로 등 모든 선수들이 화합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난 것이다.”

- 그래도 단테 존스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물론이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 단테가 득점 이외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에도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슛 기회가 많아졌고, 팀플레이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한 경기 한 경기 방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대하드라마 <토지> 오픈세트를 찾아서

土

강원도 횡성군 두곡리에 마련된 드라마 <토지>의 오픈세트엔 그 시절 극원을 빼앗기고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떠돌던 우리 민족의 터전들이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재현되어 드라마에 실재감을 불어넣고 있다. 조준구에게 재산을 뺏긴 후 나라를 등진 서희 일행의 첫 정착지인 중국 용정을 중심으로 드라마의 후반부를 알차게 채워갈 공간들이 제 나름의 자태를 뽐내며 들어앉아 있는 강원도 횡성 오픈세트는 주말이면 3,0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며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地

그 시절 그대로,

마치 그 거리에 들어선듯





잘 만들어진 배경이 주는 재미 방대한 스케일, 3년 여에 걸친 제작 준비 기간, 소설 <토지> 완간 이후 드라마화한 첫 작품으로 <토지>의 진정한 완결편이란 찬사와 함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세대구분 없이 고르게 사랑받고 있는 SBS 광복 60년 대하드라마 <토지>.

<토지>는 통한을 품고 사는 여인 최서희의 일대기이자, 격변기 혼란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이다. 드디어 땅을 되찾은 서희와 점점 더 독립운동에 빠져드는 길상을 중심 축으로 식민지 치하 우리 민족의 고단한 삶이 일본, 만주 등 동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생생히 구현되며 그 대장정의 정점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잘 만들어진 드라마의 배경은 드라마에 빠져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조건이다. 소설을 읽으며 소설의 배경을 상상하는 맛이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듯 드라마에 자연스레 덧입혀진 그 시절의 분위기와 시대상을 맛보는 것 또한 드라마의 맛을 두 배로 깊어지게 한다. 격변기의 시대상과 한반도와 일본, 만주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우리 민족의 활동기반을 생생히 재현해낸 완성도 높은 드라마로 탄생한 <토지>. 이것 또한 드라마 <토지>가 폭넓게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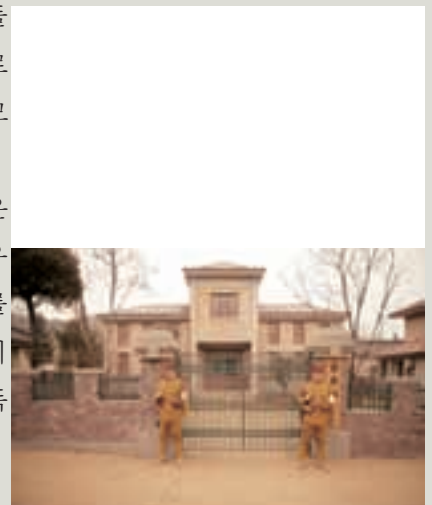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시대 먼저 용정거리를 살펴보자. 두류 등의 거대로 큰 돈을 모으게 되는 서희의 길서상회를 중심으로, 월선의 국밥집, 공노인의 객주집 등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선 이곳은 조국을 잃고 타국에 정착한 우리 민초들의 고단한 삶의 터전이었다. 중반부 이후의 중심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으로, 아마도 <토지>의 무대로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친숙한 배경일 듯.

서희와 길상의 사업지역이며 길상이 독립운동을 하던 함경도 회령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중간지점답게 양국의 분위기가 묘하게 혼재된 모습이 이채롭다. 게다가 당시 조선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마차역이라든지 경찰서, 양품점 등의 신식 건물들이 시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미를 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지식인과 독립운동가들의 주 활동무대인 일본 동경과 중국 하얼빈 거리. 후미진 카바레, 운회 약국, 서희의 아들인 환국이 장성해 목계 될 하숙집 등이 아기사자하게 들어선 동경거리와 레스토랑, 호텔, 싸롱 등 생경한 간판이 눈에 띄는 하얼빈 거리는 1900년대 초기의 일본과 중국의 모습을 재현했다. 1900년 초반의 풍경이면서도 일본은 일본색을, 중국은 중국색을, 각각 독특한 색채를 띤 분위기가 특이하다.

황성 오픈세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아무래도 이국적 풍광이 돋보이는 러시아 연추거리일 듯 싶다.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시기라는 것을 시사하는 듯 곳곳에 가로등이 서 있고, 크고 삭막하지만 세련된 풍모를 자랑하는 서양식 건물이 눈을 끈다.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고 고국으로 돌아온 서희 일행의 임시 거점인 경남 진주 거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를 드러내는 초가집이 주를 이루면서도 신문물의 산물인 현대식 건물이 들어차 있어, 신구가 공존하는 그 시대의 독특하고 생경한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원작을 최대한 살릴 터 3년 전, 황성군 두곡리 허허벌판을 바라보며 과연 그 시절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 막막한 심정이었다는 제작진. 사람이 들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세월의 흔적과 사람냄새가 곳곳에 배인 오픈 세트는 우리 민초들의 삶이 소매에 긴 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 제작진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냈다. 대작의 거대한 마침표를 향해 거침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제작진은 “원작의 훼손을 최소화해 원작에 담긴 민족혼을 고스란히 살려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초지일관된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남 하동과 강원도 횡성을 오가며 일주일 내내 쉬없이 강행군하고 있는 제작진에게 가장 힘든 점은 촉박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25회에 방송되었던 마차 전복 장면은 시간을 다투며 작업에 몰두하는 김현주, 유준상 두 주연배우와 모든 스태프를 긴장하게 만든 장면이었다고. 서희와 길상이 탄 마차를 김두수가 총으로 겨냥하는 장면으로, 총에 맞은 마차가 한 바퀴 굴러야 하는 촬영도 어려웠지만 이날의 관건은 NG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장면을 위해서 특별 제작한 마차가 단 한 대밖에 없어 만약 마차가 부서지더라도 한다면 재촬영이 어려웠던 것이다. 다행히 두 배우는 스텐트맨의 도움으로 NG 없이 한 번에 OK를 받아냈지만, 극중 서희와 길상이 죽은 줄 알고 두수가 자리를 떠난 후 두 사람이 깨어나는 극적인 상황 때문에 촬영 내내 지켜보는 이들이 마음을 졸였다는 후문이다.

시대극인 탓에 말(馬)이 말(言)을 안들어 돌발 NG가 연출되거나, 총이 제대로 발사



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하지만 대체로 큰 사고 없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듯하다.

긴 호흡과 팽팽한 긴장감 누가 주연이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적재적소에 고루 포진한 배우들의 연기력과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를 맛깔스럽게 엮어내는 짜임새 있는 각본은 <토지>의 인기에 불을 붙이는 요소다.

40회 이후부터는 서희와 길상을 중심 축으로 드디어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월선, 용이, 임이네 등 1세대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서희의 아들 환국과 기화(봉순)와 상현의 딸 양현, 그리고 영광의 어긋난 사랑, 일본인 오가다와 조선인 유인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길상의 관음탱화 완성 등 일련의 사건들이 시선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여기에 밀정 김두수에 버금가는 천하의 악인이 새로이 등장한다고 하니 대하드라마 <토지>의 인기몰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글/ 위지영_자유기고가·사진 / 서창식



Interview |

박영기 · <토지> 미술감독

광복 60년 대하드라마 <토지>로 제17회 한국 프로듀서상 미술상을 수상한 박영기 세트디자이너는 SBS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 등의 굵직한 드라마와 <그대 안의 블루> 등의 영화 작업을 통해 국내 유수한 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는 20여 년 노하우를 지닌 베테랑 미술감독이다.

- <토지> 세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사전조사 후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사실 역사적 시대적 고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살아있는 세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 이사간 집은 사람 냄새가 안 나지 않나? 전체적인 톤을 잡아놓고 계속 디테일한 작업을 더하며 사람 냄새를 덧입히고 있다.”

- 세트디자인을 할 때 주안점은?

“세트 자체가 훌륭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세트가 연출의도에 맞는지, 배경이 너무 과시적이지 않는지, 드라마의 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 튀지 않으면서 드라마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늘 따져 본다. 배우가 인물의 성격을 창출해 가는 것처럼 가가호호, 세트 각각의 공간마다 호흡과 표정들을 읽어 낼 수 있도록, 인간이 살아 숨쉬는 세트가 되도록 신경 쓴다. 이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 이종한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대하드라마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감독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진다. 이종한 감독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장소, 시간, 환경적 제약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질박한 원작의 냄새와 같은 향토적 정서, 작품 전반을 이해하는 것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재미가 이 직업의 매력이다. 공장에서 기성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니, 매번 다른 촬영지의 상황은 위험 요소인 동시에 짜릿한 즐거움이다.



연출 / 신동화 · 고영우 · 임찬목
진행 / 신동엽 · 윤현진 · 정선희 · 김생민
방송 / 일요일 오전 9시 40분

마음을 나누는 생명 교감의 즐거움이 있는 곳

2001년 5월 6일 첫 선을 보인 <TV 동물농장>은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동물의 왕국'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전복이었다. 동물 세계의 철저한 적자생존 시스템을 주로 다큐멘터리 기법을 통해 보여주며 인간과 동물을 서로 이질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해 온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 <TV 동물농장>은 내용과 형식에서 모두 달랐다. 동물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이 주는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과 즐거움을 일깨워온 <TV 동물농장>이 방송 200회를 돌파했다.



털없는 원숭이의 자각 일찍이 영국의 동물학자인 데스먼드 모리스는 자신의 책 <털 없는 원숭이>에서 '지구상에는 193종의 원숭이와 유인원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 192종은 온 몸이 털로 덮여 있는데 그 중 단 한 가지 별종이 있다.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라고 자처하는 털 없는 원숭이가 그들이다' 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인간이 체격에 비해 유난히 뇌와 생식기가 발달한 것을 빼곤 동물과 별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 50만년 전부터 발전시켜온 문명의 힘을 빌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힘을 얻었고 결국 먹이사슬의 정점에 오르게 된 인간은 철저히 자연과 동물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회를 넘기며 사랑받고 있는 SBS <TV 동물농장>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동물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이 주는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과 즐거움을 새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칭얼대는 아기 사자를 안아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입가에 묻힌 채 얼굴을 비비는 아기 곰을 행복한 얼굴로 바라보는 동물원 사육사의 이야기부터 놀라운 후각으로 범인의 뒤를 쫓는 경찰견, 유조선 난파로 기름을 뒤집어쓰고도 살아남은 아프리카 희귀 종 펭귄의 사연 등. <TV 동물농장>의 방송 첫 회분은 딱딱하지 않은 내레이션을 통해 동물과 그들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간

들의 모습을 때론 경쾌하고 때론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후 <TV 동물농장>을 본떠 만들어진 여러 개의 아류 프로그램들이 양산된 것은 <TV 동물농장>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를 반증해 준다.

동물스타의 상실 TV 3사 동물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오락' 아닌 '교양'으로 분류되고 있는 <TV 동물농장>의 성공은 그것이 동물을 통해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려는 시도였기에 가능했다.

제작진은 아시아·아프리카 7개국을 돌며 멸종 위기의 고릴라와 침팬지, 오랑우탄을 취재하며 탐욕으로 끊임없이 자연과 또 다른 생명체를 파괴하고 있는 인간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진행중인 '유기견 프로젝트'를 통해서 빼뺏어진 한국 사회의 애견문화를 들춰낸다.

아울러 <TV 동물농장>은 자연스럽게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사람이 아닌 동물을 스타로 탄생시키는 제조기 노릇을 했다. 동물 시트콤의 원조로 2001년 방송된 '개성시대' 코너에서 가수 고영욱의 애견으로 등장해 못말리는 먹성과 영리함 등으로 사랑을 받았던 '찌루'가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네티즌 사이에서 추모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였다.



연출 / 신동화 · 고영우 · 임찬복
 진행 / 신동엽 · 윤현진 · 정선희 · 김생민
 방송 / 일요일 오전 9시 40분



‘늑대개’를 떠올리게 하는 샤프한 외모로 인기를 독차지한 시베리안 허스키 ‘소프’와 숙적인 고양이 ‘샤샤’, 맹수들을 물리치고 동물원 인공 포육실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원숭이 ‘미니’와 ‘킹콩’, 다이어트에 돌입했던 오랑우탄계의 이단아 ‘우탄이’, 심부름하는 침팬치 ‘스모모’와 친구인 불독 ‘골디’... 이밖에도 동물스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동물스타 탄생의 이면에는 세 명의 SBS PD와 프리랜서 PD 9명, 그리고 구성작가 7명으로 구성된 <TV 동물농장> 팀의 숨은 노력이 배어있다. 안에서는 ‘동물 프로그램이다’ ‘폐인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동물농장 팀 가면 (일이 많아서) 죽는다’ 등등의 편견과 싸워야 하고 밖에서는 BBC나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외국 방송사들에 비해 열악한 제작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숙제는 200회가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사자나 악어 같은 맹수들을 직접 취재해야 하는 일도 큰 어려

움. 이 때를 대비한 <TV 동물농장> 팀의 3단계 행동 요령은 이렇다. 첫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구입한 특수하게 제작된 보호 장비를 갖춘다. 둘째 심리적으로 동물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그래도 안 되면 도망쳐라! 행동요령 덕택인지는 몰라도 <TV 동물농장>은 하이어나부터 표범 사자 호랑이 북극곰까지 맹수라는 맹수를 모조리 취재했으나 제작진 중 누구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프로그램 3년 10개월이라는 결코 짧은 대장정을 거처온 <TV 동물농장>은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포맷은 동물의 생태를 보여주며 해설자의 코멘트나 대사를 통해 의인화를 시도하는 식이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동물들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공감을 유도했던 것.

신동화 PD

2001년 7월부터 <TV 동물농장>에 합류하여 2년간 연출을 맡았고 2004년 6월부터는 팀장으로 <TV 동물농장> 제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신동화 PD. 그는 “<TV 동물농장>은 단순한 동물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히려 휴먼 프로그램에 가깝다”고 단언한다. “기존의 휴먼 프로그램과 혼동이 되면 ‘포스트 휴먼 프로그램’으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신 PD의 이런 색다른 주장에는 그만의 논리가 있다. “<TV 동물농장>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작은 증거들을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봐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면 크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작게는 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기에 신 PD가 MC인 신동엽과 가끔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 있다. “우리 어릴 때는 ‘타잔’을 보고 자랐다. 지금 우리 어린애들은 <TV 동물농장>을 보며 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경상도 대구 근교의 소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유년시절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동물애호가 가 됐다. “어릴 때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소도 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을 만지고 접촉하고 하는 동안 감수성이 형성됐지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라서 개를 기르지 못하는데 저랑 애들은 키우자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는 형국이죠.”

신 PD는 “외국 방송사의 경우 1년 동안 제작하는 걸 우리는 2주에 끝내는 경우가 있다. 깊숙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그래도 자존심은 지킵니다. 한 달 넘게 취재한 아이템도 도저히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방송 안 하고 그대로 버릴 때도 있죠.”

그러나 최근 <TV 동물농장>팀은 해설이나 코멘트를 조금 줄이고 동물들이 보여주는 상황 그 자체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보강하는 쪽으로 제작 방향을 틀고 있다. 기존의 방식이 식상할 수 있고 자칫 지나치게 인위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동물을 지나치게 의인화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락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제작진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제작진은 동물과 인간의 비중을 조절해 지금보다 더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집어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표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표범을 기르는 사람 이야기에 더 비중을 주는 식이다. 또 동물이 등장하는 리얼리티 코너도 기획 중이다. 남녀 사이에 사랑이나 돈을 놓고 펼쳐지는 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달리 ‘동물을 통해 과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재미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란 상황을 설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끊임없이 진화했고 또 지금 현재도 진화해 나가고 있듯 <TV 동물농장>도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TV 동물농장>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사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구상에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경의와 그것들에게 인간이 느끼는 동질감이다.

글/김대성_한국일보 기자·사진/서창석



연출 / 신동화 · 고영우 · 임찬묵
 진행 / 신동엽 · 윤현진 · 정선희 · 김생민
 방송 / 일요일 오전 9시 40분

<TV 동물농장>이 2년 6개월 동안 일본, 카메룬, 기니 등 3개국에 걸쳐 심층 취재한 야생 고릴라와 침팬지 등의 생태에 대한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 지난 2002년 '인류의 형제동물'이라 불리는 3대 유인원, 고릴라와 침팬지, 오랑우탄의 멸종 위기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보호 프로젝트의 현장을 집중 취재해 소개 한 이후에도 취재를 계속하며 쌓아둔 비밀스런 기록들을 모아 전격 공개하게 된 것이다.

<TV 동물농장> 특별기획 5부작 '거대한 약속 유인원 프로젝트 2005'

인류의 형제동물, 사라져가는 야생의 그늘



- 1편 - 자연의 대사관, 림베 고릴라 보호센터
- 2편 - 밀림의 킬링필드, 충격의 숲 고기 사냥 현장
- 3편 - 숲 속의 해방구, 침팬지 복원 프로젝트
- 4편 - 공부하는 침팬지 아이(Ai)의 아름다운 증거
- 5편 - 2년 6개월간의 기록, 아프리카 야생 침팬지

특종으로 가득한 시리즈 3월 27일부터 5회 연속 매주 일요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거대한 약속 유인원 프로젝트 2005'에서는 2005년 현재 아프리카 고릴라들의 보호 상태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제거리인 부쉬미트(bushmeat; 사냥한 야생동물의 고기) 거래 현장을 잠입 취재해 자칫 우리 시대에 야생의 거대 영장류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경고한다.

또한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2년 6개월에 걸쳐 아프리카 야생 침팬지들의 생태를 추적해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놀라운 침팬지 생태의 모습을 특종 포착했다. 다른 무리에서 온 침팬지의 유입으로 서아프리카 기니의 보소 숲에 있는 침팬지 사회에 육식 문화가 전파된 상황은 침팬지 사회에도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

죽은 새끼가 미라가 되도록 등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어미 침팬지의 모습에선 인간보다 더 진한 침팬지의 모성애를 느

낄 수 있다. 이 침팬지의 극적인 모정을 담은 화면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공개되는 특종 영상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방송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숫자와 글자를 아는 천재 침팬지 '아이(Ai)'와 그의 아들 '아유무'에게로 그대로 전수된 지식습득 수준은 유인원과 인간의 유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인류의 형제동물'이란 말의 의미를 곱씹게 할 것이다.

인내와 끈기로 거둔 수확 연출을 맡은 신동화 PD는 "2002년 중반부터 아프리카 등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야생 침팬지를 하루종일 따라다녀도 30분 정도밖에 영상에 담을 수 없었다. 그만큼 야생 동물의 모습을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며 "어미 침팬지가 죽어가는 새끼를 돌보는 과정을 모두 담은 것은 전세계 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처럼 오랫동안 야생 유인원의 생태를 추적한 일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나른한 봄날, 술과 함께 찾아오는 지방간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 ... 쉽게 피로를 느끼고 식욕부진에 메스꺼움, 복부에 팽만감마저 느껴지는가? 평소 술을 즐기고 가끔 폭음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지방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간은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다.

간은 인체의 지방대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간의 구성성분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으면 지방간이라고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증상에 따라 '실증'과 '허증'으로 나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데 혈에는 혼이 있어 간기(간의 기운)가 허하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들리면서 무서움을 타고 잠을 자다 가위에 눌리기도 한다. 반면 간기가 지나치게 실하면 양쪽 옆구리 아랫배가 아프고 걸리면서 화를 잘 낸다고 했다. 인체의 간을 한방에서는 '장군지관'이라 하여 군대에서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이 그 기능을 수행할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굳어진 상태가 지방간인 셈이다.

● ... 지방간은 비만과 과음, 내분비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비만에 의한 지방간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 체중을 조절해야 하고 당뇨에 의한 지방간의 경우 식이요법으로 고지혈증을 치료한다. 무리한 단식이나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불량으로 지방간이 오기도 한다.

과음이나 잦은 음주습관이 원인이 되는 알콜성 지방간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간이 부드러워지고 크기도 줄어든다. 하지만 알콜성 지방간은 확실하게 술을 끊지 않을 경우 만성간질환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지방과 칼로리가 낮은 식사를 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생활자세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 민들레를 말린 포공영을 쓴다. 포공영을 차처럼 끓여 마시거나 말린 쑥(인진)을 닦아서 보리차 농도로 끓인 다음 꾸준히 마시면 간에 습열이 빠지면서 지방간 치료에 효과가 있다. 당근을 갈아 마셔도 좋는데 당근에는 간을 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 ... 지방간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습관병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닢더라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다. 술을 끊고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다.

간의 대사작용을 돕는데 효과적인 음식은 우유나 유제품,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식품, 메밀이나 조개, 굴과 같은 해산물 등이다. 한 잔의 술은 삶을 신명나게 하지만 지방간이 있는 이라면 한 잔의 술도 피하고 절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주승균 한의사, 러브FM (라디오 웰빙한방) 진행자

〈불량주부〉 신애라



오랜만의 외출이다. 단순히 집을 나서는 외출이 아니라 집에서 일터로 향하는 외출이다.

새 드라마 <불량주부>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열어 보일 참이다.

실제로 모범주부인 신애라가 불량주부라는 설정은 아니다.

여차여차해서 일을 그만 둔 남편이 집에서 집안 살림을 함으로써 아내는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설정 가운데 아내 역을

맡았다. 그는 분명 신나 있었고 생활을 통해 얻은 디테일을 어떻게 연기로 번지게 할지 그 자신 역시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이웃집 모범주부의 화려한 외출

차분한 외출 그는 차와 케이크 한 조각을 권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다. 이제 막 한 장면을 끝내자마자 잠시 시간을 낸 것이었고 잠시 후에 다시 다음 장면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 듯했다.

이번 드라마가 3년 만이라고 했다. 그 3년이라는 시간감각이 자신에게 있어 꽤 '오래된 것'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오랜만의 외출을 오랜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상하게 '신애라' 라는 배우는 배우이면서 동시에 이웃인 형태로 오래 전부터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만이 주는 독특하고도 유별난 느낌 때문일 것이다.

"맞아요. <불량주부>는 바로 옆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린 드라마예요. 옆집으로 난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소음만으로도 그 집에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편안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드라마예요. 생생한 봄기운처럼 친근하고, 따뜻한 웃음이 있는..."

새벽 다섯 시부터 촬영 현장에 나와 오후 다섯 시를 육박하고 있는 시간임에도 그는 이제 막 약속 장소에 도착한 사람 같았다. "저희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요즘 많이 불량한 편이죠"라고 말하며 웃는 그. 그리고 보니 '같이 사는 사람' 과 그는 동시에 SBS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익숙해서 고마운 일상 <홍콩 익스프레스>를 보고 나서 그가 남편 차인표에게 툭 던진 말은 "당신은 악역이 딱 어울리네"였다. 옆에서 <불량주부>의 대본을 같이 보던 남편이 아내가 짜증 섞인 연기를 해야 하는 대목이 나오자 복수라도 하듯 툭 내뱉은 말은, "그냥 평소처럼 있는 그대로만 하면 딱이겠네"였다.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한 집에 같이 사는 두 배우가 나란히 앉아 상대가 출연한 드라마를 본다 생각하면 그건 자극 '이상' 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드라마를 결정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울릴까, 혹은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걸 미리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연



이 드라마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만 생각했죠. 처음 시놉시스를 읽어 내려가는데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 생활이 진하게 묻어나는 느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를 확 잡아끌더라고요. 제가 찾는 지점하고 맞았어요. 제가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처럼 드라마를 끝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가 이 드라마를 택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이 드라마가 보기 드물게 밝다는 것.

“어두운 드라마를 하면 저도 모르게 드라마를 끝내는 순간까지도 어둡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극중의 인물과 생활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예민한 성격 탓이겠죠.”

너그럽고 소탈한 사람 되기 까다로운 사람이 싫듯 너그러운 사람이 좋다. 따뜻한 걸 좋아하는 것만큼 추운 건 딱 질색이다. 이는 척하는 사람이 싫듯 소탈한 사람이 좋다.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는 만큼 아이를 품에 꼭 안는 걸 좋아한다. 가족이 아픈 걸 싫어하는 만큼 가족들과 맛있는 걸 만들어 먹는 시간이 좋다. 생활은 그에게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구분을 뚜렷하게 해 주었다.

취향은 똑 부러져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주변의 상황과 입장들을 놓치려 하지 않는 마음은 넉넉하다 못해 풍요로워 보인다. 그는 사람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이 드라마가 기운이 필요한 요즘 시대에 흥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여느 매체랑 달리 텔레비전 매체는 애써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 보는 사람도, 애써 ‘웃어야지’ 하면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를 보고 감정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솔직한 매체라는 점이 매력이죠. 일 주일에 두 시간을 뺏으려면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 이유와 제 노력이 잘 맞물리면 배우로서 최고의 행복이겠죠.”

스타가 아닌 배우로 불리고 싶어 최근 들어 아빠와 엄마, 둘 다 시간이 없어서 할머니 품을 빌려야 하는 그의 아들은 이제 듬직하게 자라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그의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고 믿는 그 아들은 엄마 옆에서 함께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 또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스런 아빠와 남편이 되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배우가 되고자 하는 남편 또한 연기자 신애라의 든든한 배경임에 틀림없다.



이제 그는 드라마 속에서 굳이 연기가 아닌 모습을 보이면 된다. 부엌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겨내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집에 거의 다 왔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으면 된다. 그는, 생활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신뢰하게 되는 배우이므로, 웬지 그에겐 세트와 집이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처럼 보이므로.

일상의 면지를 꺼안는 연기, 잔잔한 생활의 냄새가 나는 배우. 그것이 그가 스타가 아닌 배우로 남고 싶어 하는 명백한 이유다.

글 / 이병률_시인 · 사진 / 조광희

칼날 같은 바람을 품은 눈, 그 속의 체온

〈그린로즈〉 이종혁

현실의 길과 인생길의 다른 점은 인생길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예외가 가야 하는 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이종혁, 그의 나이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더 예의주시하게 만든다. 그동안 그는 한 걸음에 한 계단씩 차근차근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이 울었고 웃었고 땀 흘렸고 그만큼 세상을 배웠기 때문이다.

거침없이, 그러나 묵직하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입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날 것이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았던 잔혹하기 그지없었던 선도부장, <신석기 블루스>에서 보았던 잘나가는 건방진 변호사. 그리고 잠시 그의 몸짓을 보고 있으면 떠오를 것이다. 연극 <19 그리고 80>의 19세 청년 헤롤드, 뮤지컬 <의형제>, <오 해피데이> 등에서의 그의 모습을.

결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다. 그는 7년 동안 소극장 무대에서 탄탄히 연기력을 쌓아온 배우다. 그래서인지 마주 서서 인사를 건네는데 뱃심이 단단하고 어깨 너머가 든든해 보인다. 그런 그가 드라마에 첫 발을 내딛었다. 첫 연극무대에 서는 스무 살 무렵의 청년처럼 설레어 보이는데, 그의 두 발은 진땅이든 마른 땅이든 다 버텨낼 수 있을 것처럼 묵직하게 땅에 닿아 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 오디션을 통해서 모든 배역을 따냈어요. 주저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며 부딪쳐보고 도전하는 편이죠. 제게 있어 드라마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요. 시청자들이 저를 통해 울고 웃었으면 해요. 그런 연기를 하고 싶어요, 늘.”

섬세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침없는 그의 말투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배는 굶어도 연기는 놓치지 않고 살 사람이구나 싶다. 연기에 대한 꿈은 재벌이구나 싶다.

“어릴 때는 ‘재능’ 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서 ‘노력’ 과 ‘고민’ 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졸업하고는 방송이 아닌 연극을 택했고, 그 안에서 많이 배웠죠. 배우는 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깊고 넓게 그리고 자유롭게 사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사여구도 사족도 없이 할 말만 툭툭 던진다. 말보다 생각이 많은 이 배우, 응원하고 싶어진다.

기쁨과 슬픔은 섞인다 이번에도 악역이다. 워낙에 날카로운 눈매로 기억되는 배우인데 <그린 로즈>에서 그가 열연하고 있는 인물 현대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 상처를 복수로 돌려주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에 빠져 갈등하고 아파하는 인물이다.

“악역 맡게 되는 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함께 있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는 거죠. 그걸 잘 표현해내야겠죠.”

그렇다, 기쁨과 물은 섞이지 않지만 기쁨과 슬픔은 섞인다. 비록 악역이긴 하지만 그가 풀어내는 현대에게는 사람 체온처럼

눈물겨운 온기를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그의 차가운 눈빛 저편에서 수더분한 웃음을 발견할 수 있듯이.

“지금껏 맡아온 인물들은 대부분 저와 성격이 반대예요. 저는 싸움을 해본적도 없고 세련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부드러운 편은 아니지만 평화주의자, 낙관주의자죠. 늘 웃으면서 살려고 해요.”

그는 막걸리와 파전을 앞에 놓고 연극하던 친구들 만나 얘기 나누는 게 좋다는, 그렇게 털털하지만 독특한 남자인 것이다. 그런 그에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다.

“정말 무서워보였다고 할 때요. 제가 악역을 그만큼 잘 소화해 냈다는 말일 테니까요.”

‘차근차근’ 속의 은근한 욕심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한다.

“연기자로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지금처럼 욕심 내지 않고 차근차근 짊어가며 살고 싶어요. 평생 연기하며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욕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더 수더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잘 해내고 싶단다.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되 편협해지진 않을 것 이란다. 그것은 그만큼 노력할 것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언제 찾아가도 변하지 않는 맛을 내는 커피 집이 있다. 그 집의 커피는 설탕을 넣어도 크림을 넣어도 본연의 맛과 향을 그대로 간직한다. 그는 그 커피 같은 연기를 할 듯하다. 선한 역이든 악역이든 자신만의 맛과 향은 그대로 간직할 줄 아는 연기를, 차근차근.

글 / 정현 시인 · 사진 / 김연석



유경미 **아나운서**

음악처럼 편안한, 봄날처럼 환한

한때는 무대를 꿈꾸곤 적이 있다. 관객의 호흡으로 조용히 질이 들어가 무대 위에서 노래부르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곤 적이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꿈은 가시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걸 작은 병에라도 담아 매일 꺼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노래는 밍글게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크고 깊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그는 아나운서란 이름으로 무대 위에 섰다.

음악을 닦았다 안녕하세요? 편안하시죠? 유쾌한가요? 유경미 아나운서는 누군가에게 늘 그렇게 묻는 것만 같다. 빨랫줄에 걸린 흰 빨래가 펄럭이는 봄날,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만도 않은 책을 읽다 스크르 눈이 감기는 편안한 오후, 그의 얼굴에는 그런 편안함이 배어있다.

그는 음악을 닦았다. 어느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음악 자체, 편안하고 따뜻해서 때로는 가슴 한 칸에 울림을 주는 음악, 그러다 속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음악 말이다. 그가 편안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역시 그런 음악적인 정서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전철을 타고 집에 가다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본 적이 있어요. 그리 분주하지는 않았고 몇몇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전 다른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앞 사람의 옷깃 스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그리고 팔목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수화를 하구 있구나, 하고 시선을 돌렸는데 자꾸 눈길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웬지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는 그 봄날에 꽃망을 터지듯 들리는 소리의 언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한낱 손짓에 불과하겠지만 누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말이 되고 소리가 되는 걸 보았다.

갓 아나운서가 된 2003년 가을, 그는 고운 목소리로 주어진 문장을 분명히 읽고 전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환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소리인지 그는 전철이 떠난 뒤에도 그곳에 서서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 바라봤을

것이다. 아나운서의 역할을, 그리고 유경미인 자신을.

“정들었던 턴테이블이 있었어요. 어떤 LP라도 척척 읽어내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죠. 요즘 그 턴테이블을 생각해요. 뭐든 올려만 놓으면 소화해 낼 수 있는 넓은 턴테이블의 그 푸근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성악 전공의 아나운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지나온 흔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는 흔적이 희미해 보일 만큼 조금씩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다. 턴테이블처럼 제자리를 도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더구나 최선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역시 그가 정들었고 좋아했던 그 턴테이블을 닦지 않았는가.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힘 방송을 통해 만나는 그의 모습은 한결같이 밝다. 항상 웃으며 일정 이상의 힘찬 톤으로 말한다. 그것은 아나운서로서 MC로서 그가 정한 어떤 방향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밝음이 진하면 진할수록 오히려 진지한 깊이를 느끼게 되는 건 왜일까.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처럼 혼자서 마주친 어떤 순간 순간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혼자서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투여하고 고민한다. 시간에 쫓기고 바쁘다보면 잊고 살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그가 여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분명한 힘은 밝아서, 아름다워서, 유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힘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 신선한 공기와도 같은 한 마디, 주문과도 같은 한 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그의 눈을 보고 있자면 어떤 향이 나는 것 같다. 그 향은 그의 음색을 꼭 닮아 있다. 그가 큰 눈으로 바라보고 싶은 것은 어찌면 따스함이 아닐까. 사랑이 있는 한 마디, 행복을 주는 한 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의 눈에서는 그런 향이 나는 것 같다.

첫 걸음,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말이다. 그의 눈빛이 한결같은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처럼 그는 자신이 내딛은 첫 걸음을 기억할 것이다. 당분간은 80퍼센트만 채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더 많이 걸게 된다면, 그래서 보폭이 넓어진다면 그때 더 많은 욕심을 내도 충분할 거라고 그는 생각한다.

글/ 유준호·자유기고가·사진/ 김연석

SBS 라디오는 최근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진행자 유명미 아나운서에게 '보이스 오브 SBS' 상을 시상하였다. 이 상은 10년 이상 꾸준히 한 프로그램을 지켜온 그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것. 일반인들에게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SBS 창사 이래 첫 수상자라면 느낌이 좀 달라질 것이다. 특히 방송관계자나 방송 편성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동일 프로그램을 한 사람이 10년 넘게 진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인지 잘 알 터이다.

'보이스 오브 SBS' 수상한 <마음은 언제나 청춘> 진행자 유명미 아나운서

앞으로의 10년도 지난 10년의 마음으로

10년 장수 프로그램의 비결 매일 새벽 5시 SBS 러브FM(103.5MHz)을 통해 방송되는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은 거의 국내 유일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다. 결코 대중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특정 연령 대상의 새벽 프로그램을 1994년 첫 전파를 내보낼 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맡아 온 유명미 아나운서. 그 스스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관행상 한 프로가 이렇게 오래 가기란 쉽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장수하는 것 이상으로 한 진행자가 그 기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 그 10년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아직은 동녘에도 빛줄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이른 새벽. 그러나 새벽잠이 없는 우리네 할머님, 할아버님들께선 벌써 이부자리 걷고 조용히 하루를 맞이하는 시각이다. 바로 이때 라디오를 켜면 그가 상냥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어르신들께 문안 여쭙고, 하루 일과 채울 계획을 꼼꼼히 챙겨드린다.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삶처럼 무미건조한 삶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가 보실만한 곳 혹은 도전해볼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죠. 간혹 체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용기도 드리고요."

그래서인지 방송 중 간간이 불순한(?) 말들이 오가기도 한



다. 감히 '불량노인'이 되어보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모두가 쉬쉬하는 노년의 '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그의 당찬이 한마디에 속이 다 시원하다는 애청자들이 있는 걸 보면 그는 노인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요, 하고 싶은 말을 딱 부러지게 전해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 이렇게 청취자의 입장에서 알찬 정보와 진실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다.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노년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시기가 아닐까요?"라고 되묻는 유명미 아나운서. 삶의 무게를 존중의 가치로 환산해 내는 그의 날카롭고도 자명한 통찰 한 마디에 10년을 한결같이 사랑받아온 비결을 따로 물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언제나 도전하는 삶 이젠 누구한테든 베테랑 소리를 들을 경력의 소유자이지만 아나운서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여전히 그는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있다.

“뉴스 앵커도 계속 하고 싶고 라디오 방송에도 물론 애착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일 욕심 때문에 그는 남자도 힘들어한다는 동계 올림픽 방송에서 최초의 여성 캐스터로 활약하기도 했다.

“스포츠 캐스터는 어쩌면 방송 진행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고 없이 일어나는 상황에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하고 선수들과 함께 하는 느낌을 전하면서 승부의 순간을 감동으로 연결시켜야 하거든요.”

이와 같은 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은 프로그램 곳곳에도 반영되어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9명의 프로듀서가 거쳐가면서 조금씩 모양과 내용에 변화가 있었지만 중심엔 항상 그가 있었기에 오늘날 <마음은 언제나 청춘>만의 색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현재 이 프로는 어르신들만의 고민을 듣고 풀어주는 고풍에 여사의 '시니어 상담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오늘의 노년 문제를 짚어보는 '청춘 칼럼', 은방울자매, 안다성, 남철, 남성남 등 원로 가수 및 개그맨과 함께 추억의 이야기 세상 속으로 떠나는 '그때 그사람' 등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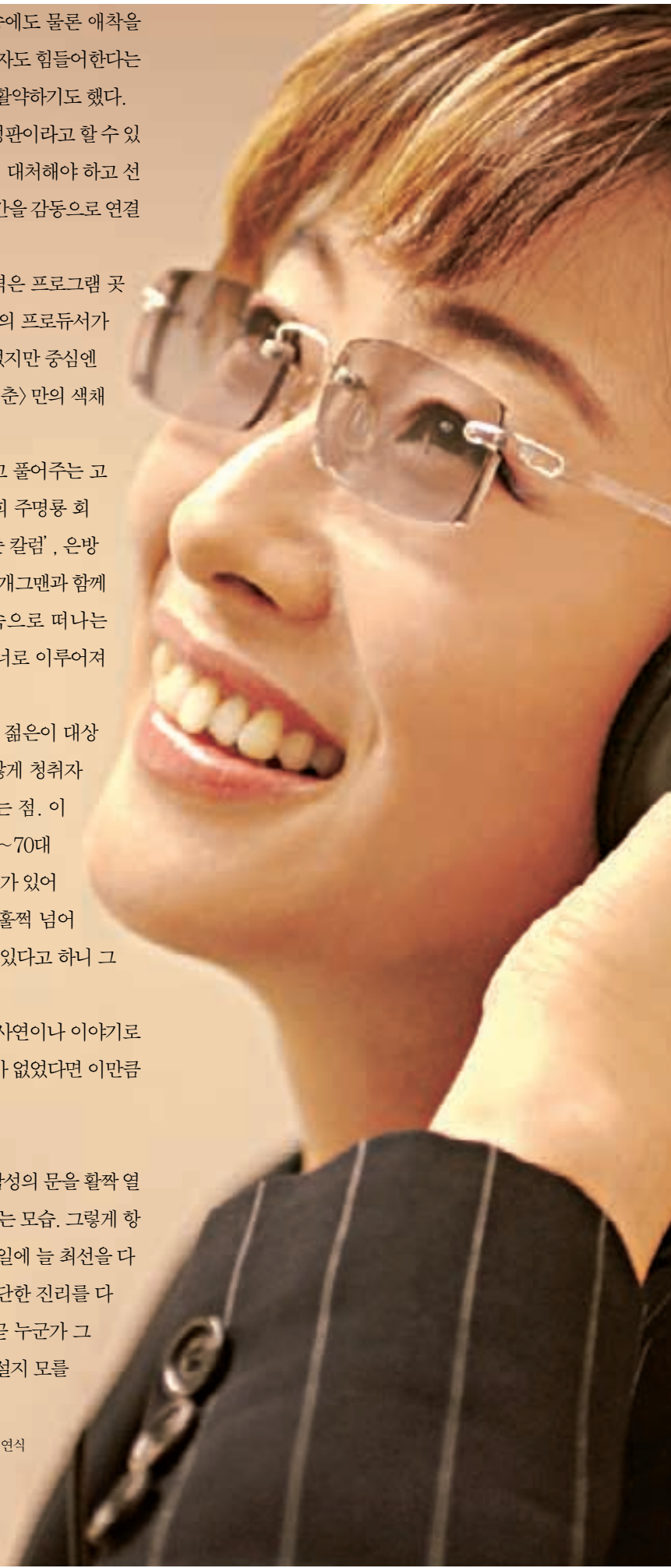
재미있는 것은 여느 젊은이 대상 인기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청취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 이미 홈페이지 상에 50대~70대로 구성된 '청춘동호회'가 있어 그 회원수가 200명을 훌쩍 넘어

선 상태고, 다음 카페에도 '유사모' 팬클럽이 있다고 하니 그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저희 프로그램은 반 이상이 청취자들의 사연이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만큼 오래 방송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결코 타성에 젖지 않고 늘 감성의 문을 활짝 열어 많은 걸 느끼며 일과 생활의 자양분으로 삼는 모습. 그렇게 항상 깨어있는 그와의 만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다시금 깨우치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이젠 곧 누군가 그의 목소리에 꿈을 꾸고 후배 방송인의 길로 나설지 모를 일이다.

글 / 김진희_자유기고가 · 사진 / 김연식





<이숙영의 파워FM>

3천회 기념 도쿄FM과 이원 생방송

‘굿모닝 도쿄’가 ‘굿바이 도쿄’ 될 뻔했던 사연

“저 내일 일본에 생방송하러 가는 기분, 솔직히 말하면 죽으러 가는 기분 같아요.”

3월 19일 일본 도쿄FM 이원생방송을 앞두고 그 전날 이숙영 씨가 마무리 멘트로 “죽으러 가는 기분 같다”고 해서 심의에서도 지적됐던 바로 그 특집. 일본에 방송하러 갔는데 기자들이 그곳까지 전화해서 “독도 문제를 다룰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콘셉트로 가실 것이지요”하고 궁금해하던 바로 그 특집. 우리보다 열성 청취자들이 더 걱정하던 그 특집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수많은 추억의 그림자를 남겼다.



독도야 독도야 우리가 특집하러 일본으로 향하려던 그때 일본이 독도에 대해 갑자기 억지를 부린 사건은 마침 분위기 좋은 한류를 특집으로 만들려던 우리의 계획에 찬물을 사정없이 뿌렸다.

하필(하 '필' 이렇게 될 걸 왜 미리 'feel' 을 못 받았는지...), 몇 년에 한 번 하는 해외특집 날짜를 독도 문제로 가장 시끄러운 날짜로 딱 하니 잡아놓은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기가 막혔다. 일본 특집의 제작을 맡은 송연호 PD와 오지영 PD가 둘 다 독신이어서 그래서 '독'도 문제가 그때 터진 것인가 괜히 서로 고민 속에 웃어보려고 농담도 해가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또 궁리했다.

일본으로 방송하러 가기 전날에도 일본에 대한 규탄의 기세가 대단했다. 일본에서의 방송을 취소하고 차라리 독도에서 방송하러면서 만약 일본에서 방송을 강행하면 다시는 방송을 듣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던 청취자들을 홈페이지에서 접하면서 밤을 지새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우리가 외친 것은 이 문장이었다. 위기는 기회다! 진실한 마음으로 방송을 만든다면 청취자들에게도 진실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니 마음은 개운해졌지만 이미 도쿄FM과 세세하게 구성해놓은 방송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바꾸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뜨거운 한류열풍을 내공으로 키워가기 위한 버라이어티쇼로 보아, 류, 김연자, 박용하 등과 한국에서도 활동하는 각트와 마이 등 여러 가수들을 불러서 축제처럼 만들어보려고 했던 우리의 화려한 특집의 꿈은 일본의 시마네인지 시네마인지 이름도 헛갈리는 그 섬의 요상한 선언으로 한 순간에 사산되고 만 느낌이었다.

다행히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문화에 익숙한 오지영 PD와 현지 코디 은춘옥 씨의 열성으로 도쿄FM 제작팀에게 한국 분위기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두 시간 중 한일 양 방송사가 함께 이원방송하는 10분 동안은 우리가 리드하고 내용도 서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만 주고 받기로 정해졌고, 서울에 있는 유자효 라디오본부장과 김국은 CP의 제안으로 방송 뒤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틀기로 했고, 이숙영 씨가 방송 중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밝히기로 대본도 수정됐다. 오래 고뇌한데 대한 보상일까. 방송은 순탄하게 이뤄졌다.

문화적 가치의 힘 동경 한복판에서, 그것도 황실 바로 옆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여러 번 외친 방송. 방송을 끝내고 이숙영 씨와 제작진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데 어떤 꼬마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안녕하세요" 한다. 엄마가 배용준을 좋아해서 지금 한국 말을 배운단다. 거기는 토익책같이 두꺼운 책으로 한국 말을 배우는 게 붐이란다.

그런 꼬마들이 자라난 후를 생각하면 한류의 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경제적 숫자보다는 문화적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그걸 그냥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일부 일본 우익들의 놀음에 우리가 놀아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굿모닝 도쿄' 라는 제목으로 다정한 특집을 기획했다가 하마터면 '굿바이 도쿄' 가 될 뻔했다. 동경에 다녀온 뒤 두피에 진물이 났다. 그래도 일본에서의 특집 방송 이후 <이숙영의 파워FM>은 방문자가 몇 배나 늘어났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는 맞나 보다. 이런 맛에 그 고생하면서도 특집을 하나 보다.

글 / 송정연(이숙영의 파워FM) 작가





〈포켓팝송〉. 당신이 8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팝키드였다면 아마 한 두 권 짤막하게 들고 다녔을 법하다. 당신이 가요를 좋아했고 야유회에서 기타 하나로 솜씨를 뽐내고 싶었다면 〈최신티트가요〉 혹은 〈이정선 기타교실〉같은 책이 책꽂이 한 칸을 장식하고 있었으리라.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영어의 스승 〈포켓팝송〉은 팝송을 좋아하고 영어에 흥미를 갖고 있던 내겐 꽤 매력적인 책이었다. 한 권에 아마 500원이었던가? 최신 히트곡의 악보, 기타 연주를 위한 코드와 ‘슬로우 고고’ 같은 기타주법까지 부록으로 실려 있었다. 무엇보다 상세하게 적힌 가사가 압권이었다. 팝송을 좋아한다고 해봤자 멜로디나 흥얼흥얼 따라하던, 그러다 ‘짜비’ 부분만 외워 부르던 그때, 영어가사 밑에 친절하게 달아놓은 우리말 발음과 해석은 어찌나 고맙던지.

중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처음으로 배웠던 팝송 F.R David의 〈Words〉 ‘월즈 돈 컴이지 투미 하우스아이 화인더웨이 투메? 유씨 아일러브유~’. ‘경솔한 속삭임’으로 번역된 Wham의 〈Careless Whisper〉를 따라 부르며 ‘careless’란 단어를 외우고. Sade의 〈Smooth Operator〉를 한글 발음을 보면서 “아니지, smooth는 스무쓰가 아니고 스무드지. 발음기호가 뻔데기가 아니구 낚시바늘이라니깐”. 영어 듣기평가가 있는 날이면 아침 내내 Yes의 〈Owner of a Lonely Heart〉를 열 번도 넘게 들으며 귀를 뚫고 가겠다고 발버둥을 쳤다.

내 영어 공부의 8할은 팝송 듣기였고, 내게 〈포켓팝송〉은 그야말로 영어를 내 마음속으로 안겨다 준 스승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영어 실력이 이 모양인 게지...) 가사를 이해하면서 들으니 그 노래가 마음에 더 와닿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하루에도 스무 곡이 넘는 노래들을 듣다 보니 선곡에 필요한 각종 팁들을 스스로만 들어낸다. 시대별 히트곡, 남성스런 힘이 느껴지는 노래들, 여성들이 빠져들만한 감미로운 노래들, 오리지널과 리메이크, 장르별 구분, 최신 빌보드 차트 수록곡, 프로그램 시간대가 아침이니까 희망을 담은 노래들, 감성을 자극하는 애절한 사연 뒤에 분위기 있는 노래 등등.

감미로운 멜로디 뒤에 숨은 뜻 얼마 전 일이다. '행복'이 키워드였던 글 뒤에 붙여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음악을 고르고 있었다. 분위기 있는 상송을 한 곡 틀까 하고 이 노래 저 노래 살피다가 갑자기 떠오른 멜로디가 있었다. 90년대 우리 가요에도 멜로디가 들어있어 친숙한, 〈Qui a Tue Grand-maman?〉. 제목 읽기도 쉽지 않은 곡을 꾸역꾸역 찾아서 들어보니 역시나 감미롭다. 괜찮군. 큐시트에 적고 DJ를 위해 친절히 우리말 발음을 적을 차례. 프랑스에서 몇 년 살다 온 옆 자리 PD에게 물었다. "이 노래 어떻게 읽어요? 뜻은?", "끼아 뤼에 그랑 마망, 뜻?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

이빨사! 미셸 폴나레프의 감미로움 뒤에 이렇게 암울한, 세태 비판의 가사가 숨어있었군. 노랫말은 대충 이렇다. '할머니의 시절이 있었지요. 그녀의 정원에서 솟아나는 꽃들. 시절은 지나가고, 오로지 마음만 남아 손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죠. 누가 할머니를 죽였죠? 시간인가요? 나무 위의 가지, 가지 위의 잎새, 가지 위에 노래부르는 새들. 불도저가 할머니를 떼밀었죠. 그리고 그녀의 꽃들을 망치질로 바꿔버렸죠. 노래부를 새들은 빌딩 밖에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은 당신을 애도하기 위한 건가요?' 개발을 목적으로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음을 개탄하는, 느낌 암울해지는 곡이었다.

노랫말을 보고 나니 아침에, 그것도 "행복하시죠?" 하며 틀기에는 좀 생똥맛이졌다. 〈포켓상송〉이 절실하던 순간이었다. 결국 다른 노래를 골랐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먼저 가요라면 가사 전달이 무슨 문제랴. 외국곡일수록 멜로디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라. 가사 해독이 안되는 것. 월드뮤직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던 캐나다 여성이 떠오른다. "선생님, 우리가 남미나 아프리카 음악을 들었을 때,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했는데 흑여 욕을 하고 있거나 정치적인,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영 판관인 노래라면, 그건 그 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다. 결혼식에서 축가로 트윈폴리오의 〈웨딩케익〉을 부르거나, 따뜻한 봄날 첫사랑의 풋풋한 설렘을 얘기하며 임현정의 〈첫사랑〉을 틀어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르는 언어로 된 노래는 이해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 번역기를 돌리거나 사전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모든 곡을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은 노래가 넘쳐 흐른다.

발표된지 20년이 넘는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을 들으며 새삼 노랫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래,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하지. 누가 자기네 땅이래? 우길 걸 우겨야지.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지! 신라장군 이사부가 지하에서 너무 웃어서 눈물을 흘릴 지경이겠군! 공부를 하자. 노랫말 이해를 위해서. 영어도, 불어도, 스페인어도, 포르투갈어도, 스와힐리어도, 아랍어도, 켈틱어도. 그러나, "그 공부들 다 할 수는 없죠? 노래는 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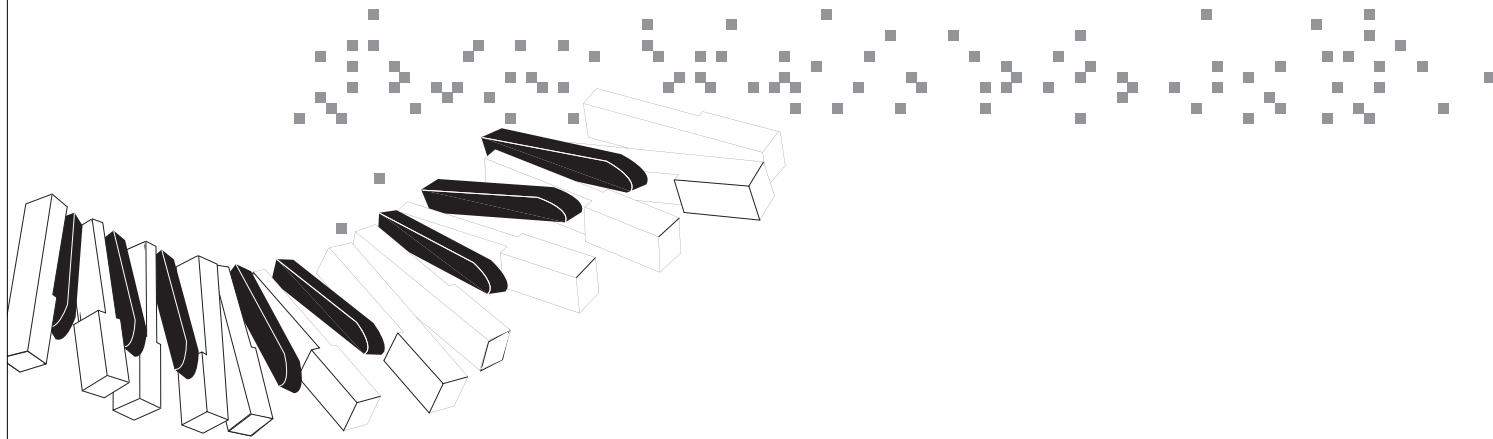
글/ 은지향 파워FM (아름다운 이 아침 김정원입니다) PD





피아니스트 한동일. 194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세 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남쪽으로 내려온 그는 피아노가 없어 서울대 의대 자리에 있던 미 공군 사령부 강당의 피아노로 연습을 했다. 그를 본 미 5공군 사령관 앤더슨 중장이 후원자를 자칭했다. 미군 병사들이 철모를 돌려 1달러, 2달러씩 모아준 5천 달러는 그의 유학 자금이 됐다.

내 인생의 3악장은 조국에서



인생 1악장, 전쟁의 폐허 속 음악신동 1954년 6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앤더슨 중장의 미 군용기가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했다. 13살의 소년 한동일도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부모님은 이별이 아쉬워 눈물 흘렸지만, 어린 그는 마냥 가슴이 뛰었다.

“이제 풍요롭고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마음껏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다!”

중간 경유지를 몇 군데인가 거쳐 1주일만에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미국 언론들은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음악신동’이라고 대서특필했다. 난생 처음으로 서양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관람했다.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회.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 4, 5번. 음 하나하나를 마음 속에 새겼다. 앤더슨 중장의 주선으로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했다. 프로코피에프니 라흐마니노프니 스크리아빈이니 하는 작곡가 이름도 뉴욕에서 처음 들었다.

1956년,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했다. 한국에서 온 천재 소년은 계속해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가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때마다 한국의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오랫동안 유일한 음악 ‘국가대표’였다. 그의 연주회 소식은 대한뉴스의 주요 기사이기도 했다.

1965년에는 레너드 번스타인이 심사위원장이었던 24회 레벤테리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번스타인으로부터 ‘동양에서 온 모차르트’라는 극찬을 들었다. 한국인이 국제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기는 처음이었다. 한국이 들쭉거렸다. 그의 도미 성공담은 가난과 피폐에 찌들었던 시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꿈이요 희망이기도 했다.

2악장. 세계 무대를 누비며 화려한 성공 뒤에는 고독이 있었다. 낮은 타국 생활의 외로움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1969년 인디애나 주립대 교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런던에서 만난 프랑스계 여성과 결혼해 2남 1녀를 두었다. 여러 대학을 거쳐 1987년부터는 보스턴 음대에 재직했다.

그리고 2004년 6월 1일. 그가 미 군용기를 타고 유학길에 오른 지 꼭 50년이 되는 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도미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열었다. 미국에서 처음 봤던 뉴욕 필 연주회 프로그램을 재현해 그 날의 감동을 되살렸다.

그를 맨 처음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던 부친 한인환 옹이 91살의 나이에 팀파니를 연주하며 아들과 한 무대에 섰다. 부친은 서울시 교향악단 창립 멤버로 오랫동안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하다 은퇴한 지 오래였다. 감회 가득한 무대, 지휘를 맡은 이대욱은 오래 전 한국에서 그를 가르쳤던 김성복 선생의 아들이기도 했다.

이 공연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철들고 나서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언제부터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김치 피를 갖고 한번 태어나면 어디 가도 그 김치 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 김치 피는 강해집니다. 그게 자연인가 봐요. 조국이 그리워지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난 해 말, 17년 넘게 재직했던 보스턴 음대에 미련 없이 사표를 냈다.

"미국.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고, 일자리도 주고, 50년 동안 나를 키워준 나라. 당신에게 감사한다. Thank you very much. 이제 나는 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간다."

3악장, 다시 돌아온 조국에서 올해 2월, 영구 귀국. 50년 8개월의 긴 '외출' 끝에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그동안 연주 때문에 한국을 오가는 했지만, '내 집'은 미국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울산대 음대 교수가 됐고, 마침 공석이던 학장에도 취임했다. 학교에서 마련해준 교수 사택에서 산다. 미국에서 일하는 아내는 방학 때를 제외하고는 떨어져 지내야 한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인생, 참 쉽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헤어져 미국, 유럽에서 혼자 지냈죠. 이제는 평화를 찾았어요. 외롭지 않아요. 학생들을 통해 내 가정을 찾았어요. I have a family."

음악과 인생 모두에서 그는 좋은 스승이 되고 싶다. 외국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을 모조리 전해주고 싶다. 화려한 성공 뿐 아니라 뼈저린 실수와 후회까지도.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거울삼아 빨리 독자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그의 레슨은 항상 열정이 넘친다. 조국에 돌아와 가르치는 제자들은 하나하나 소중하고 대견하다. 이 학생들을 잘 길러내 세계 무대에 소개하고 싶다. 외국의 음악가 친구들을 초빙해 마스터 클래스도 열 생각이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지금껏 자신을 성원해준 조국에 빛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왜 하필이면 지방대냐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역사가 짧은 지방 학교에서 더 큰 희망을 봤다. 이미 다 갖춰져 있는 학교에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는 즐거움이 없다. 젊은 학교, 젊은 학생들이 좋다. 외국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이들은 특별하다. 정이 간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새 삶을 사는 듯한 활력을 느낀다.

그는 요즘 행복하다.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라는 이 시기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조국에 돌아와 쓰는 인생 3악장. 어떤 음표들이 3악장을 채울지, 그도 아직은 확실히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3악장은 앞선 그 어느 악장보다도 울림이 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가 빚어내는 '인생의 음악'은 계속될 것이다. 3악장이 반드시 끝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4악장도 있지 않은가.



문 앞에 봄이 온 것을 입맛이 먼저 알더라

산뜻한 봄 향기가 물씬~, 봄요리 Best5

봄 주꾸미가 기가 막혀, 주꾸미 샤부샤부

홍합 육수로 즐기는 주꾸미의 쫄깃하고 개운한 맛! 무한 제공되는 홍합이 커다란 냄비에 한 가득 나와 입맛을 돋운다. 알이 짝 차 더 맛있는 주꾸미는 이 봄이 가기 전에 꼭 만나야 한다.

● 몽대식당 02-784-5347

메뉴 | 주꾸미 샤부샤부, 주꾸미비빔국수 등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싱그런 봄을 먹는다, 봄나물 비빔밥

여린 풀 속에 봄에 필요한 온갖 영양분을 품고 태어난 봄나물. 냉이를 넣은 구수한 된장국과 식초와 참기름, 깨소금이 어우러진 새콤한 달래무침이 잠자던 미각을 깨운다.

● 황금보리 032-466-5611

메뉴 | 산채비빔밥, 낙지볶음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묵은 김치가 질릴 때쯤 생각나는 상큼함, 김치 곁절이쌈

푹~묵은 겨울 김치는 가라! 산뜻한 곁절이 납신다! 곁절이와 잘 익은 돼지고기의 절묘한 궁합이 기가 막히다. 긴 겨울을 벗어나 파릇파릇한 얼굴이 배추 곁절이로 새 봄의 입맛을 살려보자.

건강음식 대백과가 추천하는

춘곤증 퇴치 음식

봄이 오면 왜 춘곤증이 따라오는 걸까? 이는 겨우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간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반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 입맛이 없고 쉽게 피로가 쌓이기 때문! 그렇다면 어떻게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보약을 먹어야 할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준비했다, 춘곤증에 좋은 음식 베스트 3.

● 번비를 예방한다! 고구마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번비에 좋은 고구마. 그런데 왜 고구마를 먹으면 망치하게 방귀가 자꾸 나올까? 이는 고구마의 하얀 진액인 알라핀이란 성분 때문. 하지만 우유나 사과와 함께 먹으면 걱정 없다. 우아한 봄치너로 만드는 고구마, 이렇게 먹어라!

<웰빙간식, 고구마 맛탕>

1. 고구마는 껍질을 벗긴 다음 큼직하게 썬다.
2. 고구마를 두 번 튀긴 다음 기름을 쏙 빼낸다.



3. 끓인 물엿에 튀긴 고구마를 넣고 땅콩가루를 뿌린다.

* tip | 설탕대신 물엿을 넣으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땅콩가루를 뿌리면 훨씬~고소해진다.

● 겨울과 봄 사이 환절기 보약, 봄나물

봄나물의 대명사, 냉이와 달래! 냉이는 단백질과 비타민 C, 작은 마늘이라 불리는 달래는 비타민과 칼슘, 철분을

묵은 겨울옷 벗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은 식도락가들이 즐거운 계절이다. 자고로 모든 음식은 제철에 즐겨야 하는 법! 봄을 찾아 떠나는 미각여행을 통해 산뜻한 봄 향기에 흠뻑 취해보자.

● 김치쌈롱 031-468-1745
 메뉴 | 김치 곁절이쌈, 강된장 등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조개와 차돌박이의 환상적인 만남, 차돌빽 조개

차돌박이 기름이 비터효과를 대신해 조개에 쫄 배어들었다. 조개의 자연조미료 성분과 차돌박이의 단백질 성분이 반응해 따로 소스가 필요없을 정도로 환상적인 맛을 낸다.

● 차돌빽조개 032-526-4648
 메뉴 | 차돌빽조개, 조개로스, 얼음그릇 냉면 등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하얀 속살의 맛있는 유혹, 꽃게요리

꽃게는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제철을 맞아 살이 딱 차고 단맛을 낸다. 꽃게에서 우러나오는 은은한 향, 게살의 담백함, 국물의 시원함까지~. 입안에서 살살 녹는 하얀 속살의 유혹, 제철 만난 꽃게로 봄을 느껴보자.

● 떡순이 꽃게찜 02-882-6663
 메뉴 | 꽃게탕, 꽃게찜 등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비릿한 무기질이 풍부하다. 찬 성질을 가진 냉이는 몸의 열을 내려 고혈압에 좋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달래는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

<냉이 된장국>

1. 소금물에 모시조개를 넣고 해감시킨 후 삶는다.
 2. 냉이는 뿌리째 소금물에 데쳐 찬물에 헹군 다음 잘라 콩가루로 버무린다.
 3. 모시조개 삶은 물에 된장을 풀고 마늘과 새우를 넣어 육수를 만든 다음, 냉이무침과 소금, 풋고추를 넣는다.
- * tip : 콩가루는 냉이의 맛을 더욱 고소하게 하고, 된장과 냉이를 함께 먹으면 쓴 맛이 줄어들고 봄나물에 부족한 단백질이 보충된다.



- 봄을 깨우는 대표 과일, 딸기
- 비타민 C가 사과 10배, 귤의 2배가 되는 딸기, 4~5개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가 섭취되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다이어트와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딸기잼 만들기>

1. 달군 냄비에 딸기 1kg을 통째로 넣고 으갠다.
 2. 설탕을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졸인다.
 3. 졸이는 중간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
- * tip : 나무젓가락으로 하면 비타민 c의 손실이 줄어든다.



대한민국 고교 야구,

그 진정한 왕중왕을 찾아서

SBS 스포츠채널이 오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고교야구의 진정한 왕중왕을 가리는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최우수 고교대회’를 독점 중계방송한다. 고교야구에 대한 향수를 되살리고 아마추어 야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최우수 고교대회’는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의 14개 고교 야구팀이 참가하며, 아마추어 야구대회의 산실인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왕중왕을 가리게 된다.

SBS 스포츠채널,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최우수 고교대회’ 독점 중계방송



고교야구 전성시대를 기억하는가 우리나라에 야구가 도입된 것은 1905년 기독교청년회(현 YMCA)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던 필립 길레트(Phillip Gillet)라는 미국인이 청년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라고 알려진다.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야구 역사는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고교야구가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국민들은 올해로 60년을 맞는 청룡기와 59살의 황금사자기, 39살의 대통령배, 35살의 봉황대기 등을 통해 온통 고교 야구에 열광하고 또 그 열기를 만끽했었다. 봄철에는 대통령배, 늦봄에는 청룡기, 여름방학에는 봉황기, 그리고 초가을엔 황금사자기가 늘 장안의 이야기거리를 풍부하게 했다. 당시의 고교야구 열기는 어쩌면 오늘날 프로야구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못하지 않았다.

야구 명문들이 다 모였다 이번엔 개최되는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최우수 고교대회'의 14개 참가 고교는 전국 4대 고교 야구대회(황금사자기·청룡기·대통령배·봉황대기)에서의 우승 횟수에 따라 선정된 11개 팀(경북·경남·부산·신일·광주일·상원·군산상·선린인터넷·천안북일·동산·덕수정보산업고)과 역대 성적과 팀의 전통을 고려해 엄선된 3개 팀(동성·인천·서울고)을 합쳐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는 4월 11일 오후 3시 신일고와 인천고의 경기를 시작으로 16일까지 매일 오후 3시와 6시 30분 2경기씩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며, 결승전은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각 학교 출신 야구스타가 경기 전 시구와 시타를 통해 대회를 축하할 예정이며, 최고의 고교 슬러거를 겨루는 홈런 레이스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참가 고교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응원상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흥미를 돋운다.

이번 대회 우승팀에게는 500만원의 장학금과 500만원 상당의 꾸민 야구 장비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따뜻한 봄날 오후의 여유를 SBS 스포츠채널의 '한국야구 100주년 기념 최우수 고교대회' 중계와 함께 느껴 보시기를 권한다.

SBS 미디어넷은 케이블 채널인 SBS 골프채널, SBS 스포츠채널, SBS 드라마플러스의 통합명칭입니다.

편성표 및 하이라이트는 SBS PR 사이트(<http://sbspr.sb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BS 골프채널

www.sbsgolf.com



클릭! 샷 온라인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최근 골프 관련 온라인 게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하고자 SBS 골프채널이 준비한 프로그램. 연예인, 슈퍼모델,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출연하여 9홀 스킨스 게임을 펼치는 <클릭! 샷 온라인>은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어 긴박감과 생동감이 넘친다.



프로골퍼 X파일

매주 화·수요일 저녁 7시

국내 최고의 프로가 상황별 레슨과 라운드 레슨을 실시하여 트러블 샷 탈출방법과 실전 코스 공략실시 등 다양한 골프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아람, 김희정 프로의 알찬 상황별 레슨과 코스 매니지먼트 레슨이 서로 접목하여 시청자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 <프로골퍼 X파일>의 멋진 현장으로 초대한다.

SBS 스포츠채널

<http://sportsch.sbs.co.kr>



월드클래스 챔피언십 복싱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세계 복싱기구인 WBC, IBF, WBF, WBA, WBI 등이 주관하는 세계타이틀 매치를 미국 유명 도시를 돌며 치르는 경기. 세계 최정상급 타이틀 매치와 최고의 복서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스트라이크 포스 킥복싱

매주 월요일 밤 11시

치열한 결투, 명장면, 명승부가 펼쳐지는 킥복싱. 전세계적으로 매년 200회 이상 이벤트를 개최하고 척 노리스, 장글로드 밴덤 등 유명 인사들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킥복싱의 진수 <스트라이크 포스 킥복싱>.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SBS 드라마플러스

www.drama.sbs.co.kr



그린 로즈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오전 8시 40분

한 남자가 인생의 정점에서 음모에 빠져 살인자, 탈주범의 누명을 쓴다. 죽은 자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린 그가 피나는 모험 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하고 사랑하는 연인의 원수가 되게 만든 사람들을 응징하는 복수극. 교수, 이다해 주연의 <그린 로즈>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시청자를 다시 찾아간다.



불량주부

매주 화·수요일 오전 11시

시대의 동병상련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눈물과 괴로운 현실이 아닌 통쾌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드라마다. 생각없이 웃으면서도 동감의 감탄사를 자아내고 돌아서면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든다. 위치가 바뀐 부부(손창민·신애라)를 통해 이 시대 진정한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조명해본다.

다시 보고싶은 화제작 두 편 무료로 감상하세요

727에서 드리는 4월의 선물



■ 드라마스페셜

〈파란만장 미스김 10억 만들기〉

연출 | 장기홍

출연 | 지진희 · 김현주 등

■ 드라마스페셜
〈섬마을 선생님〉

연출 | 김영섭

출연 | 김민중 · 한기혜 등



www.sbs

www.sbs.co.kr 소식



〈불량주부〉 김치찌개 만들기

살림하는 남편과 일하는 아내를 소재로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라마 〈불량주부〉의 홈페이지에서는 게시물을 게재한 '불낙전골' ('불량주부 보는 낙으로 사는 전국의 골수팬' 의 약자)에게 김치찌개 재료 아이템을 제공해 최종적으로 보글보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는 이벤트를 연다.

김치찌개 재료 아이템은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하루에 게재한 글 건수 1~5위에 랭크된 사람과 베스트 시청소감으로 뽑힌 사람, 그리고 '불량작품' 게시판에 작품짱으로 선정된 사람 등 홈페이지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네티즌에게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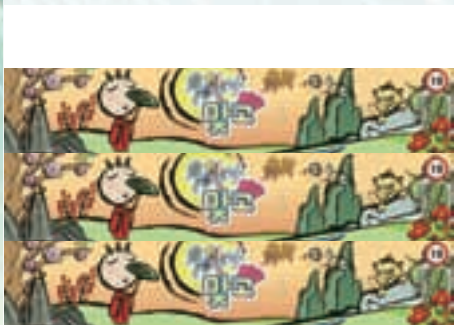
김치찌개 재료 아이템은 마늘, 양파, 고추, 배추, 돼지고기, 김치찌개 순이며 김치찌개가 완성되어 요리왕으로 등극하면 TV 다시보기 쿠폰 과 (SBS 매거진) 등을 선물로 제공한다.



〈홍콩 익스프레스〉 OST 선물 이벤트

SBS 홈페이지 뮤직채널 뮤직파크에서는 이기찬, 이은미 등 톱가수들의 참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홍콩 익스프레스〉 OST 선물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4월 14일까지 뮤직파크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홍콩여행 상품권과 〈홍콩 익스프레스〉 OST 오리지널 CD를 선물로 제공한다. 또 〈홍콩 익스프레스〉 OST의 감상평을 게시판에 올린 이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홍콩 익스프레스〉 TV 다시보기 16회 풀 패키지 상품을 제공한다.



SBS 게임파크 쿠폰 도입

SBS 홈페이지의 게임채널 게임파크에서는 www.sbs.co.kr 사이트내의 VOD를 무료로 볼 수 있는 G쿠폰을 도입하고 4월 한 달 동안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우선 G쿠폰은 게임파크 내 '웃찾사 맞고' 의 계급에 따라 일정한 수량의 쿠폰을 1주일에 한 번 수령할 수 있으며 게임머니로 교환한 G쿠폰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SBS는 G쿠폰 도입을 기념해 '웃찾사 맞고' 의 황금보물상자 미션을 성공하면 금 30돈과 브로치 등 100% 당첨의 다양한 경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또 참여한 게임판수에 따라 무료 G쿠폰을 지급하며 처음 접속한 신규 유저를 위해 1주일간 매일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다.

‘2004~2005 SHINHWA Live in Seoul’ DVD 출시

SBS는 굿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그룹 신화의 라이브 콘서트 실황을 담은 DVD ‘2004~2005 SHINHWA Live in Seoul’ 을 출시한다.

이번 DVD에는 작년 12월 19일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된 ‘SHINHWA 2004-05 Winter Story Tour’ 1부와 2부 공연 실황의 모든 곡들을 재편집하여 담았으며 신화의 7집 히트곡 및 ‘윈터 스토리’ 앨범, 역대 히트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또 국내 콘서트 DVD 사상 최초로 멀티앵글 기능을 탑재하여 신화의 히트곡인 〈Brand New〉, 〈Shooting Star〉, 〈Hero〉 등 3곡을 6명의 멤버별로 카메라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밖에도 콘서트 삭제 장면으로 구성된 ‘Delete Scene’ 을 포함해 콘서트 준비 모습을 담은 콘서트 메이킹 필름과 일본 콘서트 투어 스케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이번 DVD는 이승환, 박정현 등의 DVD를 제작한 드림팩토리가 5.1서라운드 믹싱을 담당하고 공연 실황 녹화는 SBS의 중계 스태프가 진행하여 사운드와 영상 모두 최고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라이브 DVD에 더해 48페이지 분량의 콘서트 사진집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DVD 표지사진을 원하는 멤버의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는 맞춤 제작을 시도해 팬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BS는 공식 발매에 앞서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를 통해 예약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DVD는 최상의 품질과 국내외에서의 신화의 인기에 힘입어 현재 국내를 포함해 일본, 동남아 등으로부터 이미 1만 5천장의 사전 주문 예약을 받았다.

신화의 라이브 DVD는 DVD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콘텐츠 유통채널을 통해 서비스되는 ‘One Source Multi Use’ 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DVD 발매를 계기로 SBS는 굿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신화의 다양한 스타 영상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HDTV 시대에 맞춰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콘서트 및 인터뷰에 HD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2005년 SBS 개그 콘테스트 개최

지난 2003년에 이어 ‘2005 SBS 개그 콘테스트’ 가 시작되었다. SBS는 지난 3월 2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서류전형을 거친 320여 명에 대한 1차 예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0여 명 선으로 압축된 예비 개그맨들이 2,3차 예선과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최종 합격자들은 개그 전문 기획사인 쥘스마일매니아(대표 박승대)를 통해 전문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 이들은 SBS와 쥘스마일매니아의 공동 소속인 I-family의 일원으로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웃찾사〉를 비롯, 각종 쇼 및 오락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난 2003 SBS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결성된 I-family 멤버는 ‘택아’의 윤택·김형인, ‘행남야’의 김태현·김신영, ‘귀염둥이’의 이종규·김형은, ‘왜 없어’의 정만호·정삼식, ‘화상고’의 김기욱·박상철 등 30여 명으로 현재 이들은 SBS 예능 프로그램을 중형무진 누비고 있다.



이번 콘테스트의 대상 1팀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천만 원, 금상과 은상 각 1팀에게는 5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 및 트로피, 그리고 동상 2팀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영화 특급



미술관 옆 동물원

감독 / 이정향 주연 / 심은하 · 안성기 · 이성재 촬영PD / 배숙현 방송 / 4월 3일 밤 11시 45분

결혼식 비디오 촬영기사 춘희(심은하 분)는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는 반듯하고 세련된 국회의원 보좌관 인공을 짝사랑한다. 그런 춘희의 보급자리에 말년휴가 나온 군인 철수(이성재 분)가 무단침입한다. 그는 애인 다혜가 이사가버린 줄 모르고 여느 때처럼 다혜와 휴가를 즐기러 왔다가 찾아든 것이다. 다혜가 곧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된 철수는 다혜의 맘을 돌려보겠다고 춘희의 집에서 막무가내로 버틴다. 춘희는 이 낮은 남자의 뻔뻔함에 당황하기도 하지만 측은하게도 느껴져, 당분간 집을 나눠 쓰기로 한다.

짝사랑 중인 춘희와 실연당한 철수는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서로의 상처를 한껏 헤집어놓다가 안쓰러워지면 다독여주기도 하면서 조금씩 정을 붙인다. 춘희가 짝뿔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에 철수가 끼여들고, 두 사람은 인공과 다혜를 분신으로 내세워 현실에서 못다한 사랑을 시나리오에서 풀어가기로 한다.

〈집으로〉를 연출한 이정향 감독의 데뷔작으로 특특튀는 대사와 다채롭고 산뜻한 색배합을 이루어낸 화면, 주연배우의 호연으로 빛이 났던 영화. 특히, 심은하의 빨간 자켓과 노란 우산, 미술관과 동물원의 아름다운 풍광 등 잊지 못할 장면들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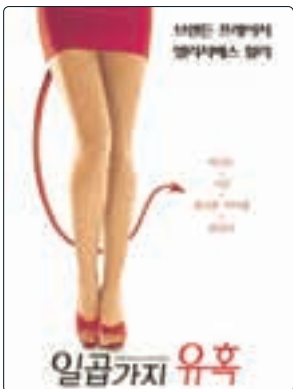


딥 블루 씨 Deep Blue Sea

감독 / 레니 할린 주연 / 새프론 버로우즈 · 사무엘 잭슨 · 토마스 제인 촬영PD / 김 박 방송 / 4월 10일 밤 11시 45분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상 연구소 아쿠아티카. 수전 맥켈레스터 박사(새프론 버로우즈 분)를 비롯한 연구팀은 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구상 동물 중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살상무기인 상어를 이용해서 인간의 손상된 뇌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 중증 치매환자도 알아 하나도 완벽하게 완치될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연구팀은 연구에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수전은 연구 중 좀 더 손쉽게 상어들의 뇌세포를 얻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유전자 조작 실험에 손을 대고, 유전자가 조작된 상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고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완벽한 살상 괴물로 변해버리게 된다.

한편 그동안 연구비를 제공하던 투자회사는 연구 상황을 실사해 비판적인 결론이 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연구소를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하기에 이른다. 결국 투자회사에서 나온 검시관 러셀 프랭클린(사무엘 잭슨 분)의 감시 아래 수전 박사와 그녀의 팀은 상어 중 가장 큰 놈의 뇌 조직을 떼어내는 실험에 성공하지만, 실험 중이던 상어가 마취에서 깨어나 자신의 뇌조직을 떼어낸 인간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구팀은 건잡을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드는데….



일곱 가지 유혹 Bedazzled

감독 / 해럴드 래미스 주연 / 브랜든 프레이저 · 엘리자베스 헐리 촬영PD / 배숙현 방송 / 4월 17일 밤 11시 45분

엘리엇 리처드(브랜든 프레이저 분)는 멀쩡한 외모에 풍채도 당당하지만, 알고 보면 약간 바보같은 정도로 순진한 남자다. 컴퓨터 고객 고충처리반 직원인 그는 동료 여직원 엘리슨 가드너(프란시스 오코너 분)에게 푹 빠져 있으나 불행히도 그녀는 엘리엇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엘리엇은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조금씩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자신을 악마라고 소개한 아름다운 악마(엘리자베스 헐리 분)를 만나게 된다. 악마는 엘리엇에게 황당한 거래를 제안한다. 영혼을 팔면 그 대가로 7개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일곱 가지 소원을 들어 주기로 한 악마의 힘을 빌려 엘리엇은 돈과 권력이 넘치는 스페인의 부호, 유명한 프로 농구선수, 낭만적인 시인, 배우 등으로 다양한 변신에 성공하지만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엘리슨의 사랑을 얻는 데는 실패한다. 이제 엘리엇은 한 가지 남은 마지막 소원을 사용해 엘리슨의 사랑을 차지해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몰리게 되는데….



데블스 오운 The Devil's Own

감독 / 알란 파쿨라 주연 / 해리슨 포드 · 브래드 피트 평량PD / 김 박 방송 / 4월 24일 밤 11시 45분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자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면모를 지닌 뉴욕의 경관 톰 오메라(해리슨 포드 분). 아일랜드 출신인 그는 어느 날 법관인 피터의 주선으로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로리(브래드 피트 분)라는 청년을 집에 맞아들이게 된다. 톰과 그의 가족은 로리를 한 식구처럼 대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로리는 톰에게 있어 새로운 활력소이자 절친한 친구가 된다.

그러나 로리의 정체는 아일랜드 공화국군(IRA)의 핵심 인물인 프란시스 맥과이어로, IRA의 지령에 따라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스팅어 미사일을 입수하기 위해 미국에 들어온 것이다. 프란시스는 어릴 적 아버지가 영국 경찰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 테러리스트. IRA의 지령에 따라 임무를 진행해나 가던 프란시스는 무기상 빌리 버크에게 협박을 받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톰은 배신감과 더불어 테러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프란시스를 추격하고,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격전을 벌이게 된다.



맹부삼천지교

감독 / 김지영 주연 / 조재현 · 손창민 평량PD / 배숙현 방송 / 4월 30일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무한 존경을 받고 있는 '맹모삼천지교'의 주인공 맹모가 21세기 대한민국에 부활했다. 맹모처럼 세 번의 이사도 마다 않는 교육열은 기본이고, 맹모보다 과감한 결단력과 민첩한 행동력까지 갖춘 맹렬 부성 맹만수(조재현 분)가 바로 그 주인공. 족집게 학원 1등 등록과 잘 나가는 인터넷 과외 강사와 학원 강사 리스트를 주르륵 꿰는 그는 못말리는 바지바람의 소유자. 강북고 1등인 아들 사성이의 명문대 입학확실하고 있는데, 집, 학교, 학원이 1km 내에 있어야 명문대에 합격한다는 일.당.십.락!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마침내, 맹만수는 한국 최고의 금싸라기 땅 대치동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다.

세 번째 이사를 결행한 맹만수는 학교와 학원이 5분 거리에 있고, 모의고사 전국 1등이 앞집에 사는 완벽한 교육 환경에 행복해한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앞집 전국 1등의 삼촌(손창민 분)이 잠시 휴업중인 건달이라니. 최고의 환경을 찾아 사채까지 얻어 이사왔는데, 최악의 이웃을 만났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가리는 맹만수, 이제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맹사성 명문대 입학 장애물 제거 작전'이 펼쳐진다.

특 선 영 화



러시아워 2 Rush Hour 2

감독 / 브래트 라트너 주연 / 성룡 · 크리스 터커 평량PD / 광경숙 방송 / 4월 5일 오후 4시 40분

국제 범죄조직의 1억불 음모, 최고의 커플인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홍콩 특수 경찰의 베테랑 형사 리(성룡 분)는 휴가차 홍콩에 들른 LA 경찰 카터(크리스 터커 분)와 반가운 재회를 한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도 잠시, 홍콩 내 미국 대사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휴가는 고스란히 반납되고 만다. 사건 배후에 수퍼빌이라는 미화 100불 짜리 위조 지폐를 밀매하는 대규모 범죄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 리 형사. 더욱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리키 탄(존 론 분)인 것을 알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예감한다. 그러나 탄의 오른팔인 후리(장쯔이 분)의 거센 방해공작으로 사건은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리키 탄 일당이 LA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지고 리와 카터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홍콩과 LA, 뉴욕을 거치면서 탄 일당의 범죄행각을 파헤치기 위해 중흥무진하던 두 파트너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카지노와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SBS Television schedule

月	火	水
<p>AM</p> <p>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진주귀걸이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SBS 건강스페셜</p> <hr/> <p>PM</p> <p>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꿈나무 이야기 4:50 통과 제리 5:00 은하영웅 사이버트론 5:30 용의 전설 레전더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p>  <p>7:05 백만불 미스터리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5 주간시트콤 귀엽거나 미치거나 9:55 월화드라마 불량주부</p>  <p>11:05 야심만만!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p> <hr/> <p>AM</p> <p>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골프</p>	<p>AM</p> <p>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진주귀걸이</p>  <p>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9:30 김승현·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p> <hr/> <p>PM</p> <p>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그린 세상 4:50 통과 제리 5:00 은하영웅 사이버트론 5:30 용의 전설 레전더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패밀리스토리 우리집에 생긴 일 8:00 SBS 8 뉴스</p>  <p>8:45 오늘의 스포츠 8:55 뉴스추적 9:55 월화드라마 불량주부 11:05 김용만 신동업의 즐거찾기</p> <hr/> <p>AM</p> <p>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페셜</p>	<p>AM</p> <p>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8:30 아침연속극 진주귀걸이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p>  <p>9:30 김승현·정은아의 좋은 아침 10:40 뉴스와 생활경제 11:10 여자 플러스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11:35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p> <hr/> <p>PM</p> <p>12:25 드라마 특선 토지 4:00 SBS 뉴스 4:10 오픈 스튜디오 실버 만세 4:50 통과 제리 5:00 짱구는 못말려 5:30 마법신화 라그나로크 6:00 SBS 뉴스퍼레이드 6:20 생방송 투데이 7:05 해결! 돈이 보인다 8:00 SBS 8 뉴스 8:45 오늘의 스포츠 8:55 생방송 TV연예 9:55 드라마스페셜 건빵선생과 별사탕 (4월 13일 첫 방송)</p>  <p>11:05 수요토론 이것이 여론이다</p> <hr/> <p>AM</p> <p>0:15 SBS 나이트라인 0:45 스포츠 와이드 0:55 SBS 스포츠 중계식</p>

木

金

土

日

AM

-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진주귀걸이
-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10 여자 플러스
-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 11:35 TV 아름다운 가게



PM

- 12:25 드라마 특선 토지
- 4:00 SBS 뉴스
- 4:10 오픈 스튜디오 사랑의 징검다리
- 4:50 알쏭달쏭 빅터
- 5:00 짱구는 못말려
- 5:30 마법신화 라그나로크
- 6:00 SBS 뉴스퍼레이드
- 6:20 생방송 투데이
- 7:05 유쾌한 두뇌검색
- 8:00 SBS 8 뉴스
- 8:45 오늘의 스포츠
-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9:55 드라마스페셜
건빵선생과 별사탕
- 11:05 웃음을 찾는 사람들



AM

- 0:15 SBS 나이트라인
- 0:45 스포츠 와이드
- 0:55 문화가 중계

AM

- 6:00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진주귀걸이
- 9:00 체험! 지구촌 홈스테이
- 9:30 김승현 · 정은아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10 여자 플러스
- 11:30 시청자 제보 - 물은 생명이다
- 11:35 금요 컬처클럽



PM

- 4:00 SBS 뉴스
- 4:10 오픈 스튜디오 여성시대
- 4:50 금요 만화특선
- 5:35 물은 생명이다
- 6:00 SBS 뉴스퍼레이드
- 6:20 생방송 투데이
- 7:05 진실게임
- 8:00 SBS 8 뉴스
- 8:45 오늘의 스포츠
- 8:55 아이엠
- 9:55 금요드라마 사랑공감
- 11:55 경제 인사이드



AM

- 0:15 SBS 나이트라인
- 0:45 스포츠 와이드
- 0:55 시네클럽

AM

- 6:00 토요일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진주귀걸이
- 9:00 잘먹고 잘사는 법



11:00 낭만콘서트

PM

- 12:00 SBS 뉴스
- 12:10 열린 TV 시청자 세상
- 1:10 재미있는 TV천국
- 1:50 스포츠 중계 및 재방송
- 3:50 시트콤 스페셜
- 4:50 SBS 뉴스
- 5:00 퀴즈쇼 최강남녀
- 5:50 실재상황! 토요일
- 6:50 솔로몬의 선택
- 8:00 SBS 8 뉴스
- 8:35 오늘의 스포츠
- 8:45 대하드라마 토지
- 9:45 특별기획 그린로즈



10:55 그것이 알고 싶다
11:5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AM

0:55 게임쇼! 즐거운 세상

AM

- 6:00 일요특집
생방송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모닝와이드(2부)
- 7:50 한수진의 선데이클릭
- 8:40 도전! 1000곡
- 9:40 TV 동물농장



10:50 결정! 맛 대 맛

PM

- 12:00 SBS 뉴스
- 12:10 접속! 무비월드
- 1:10 순간포착 스페셜
- 1:50 스포츠중계 및 재방송
- 3:50 생방송 인기가요
- 4:50 SBS 뉴스
- 5:00 특명! 아빠의 도전
- 6:00 일요일이 좋다
- 8:00 SBS 8 뉴스
- 8:35 오늘의 스포츠
- 8:45 대하드라마 토지



9:45 특별기획 그린로즈
10:55 세븐데이즈
11:45 영화특급

AM

1:35 스포츠 빅 이벤트

SBS Radio schedule

Love FM 103.5MHz 792KHz
* 월~일요일 05:00~24:00 매시 정각에 뉴스

月~土 日

AM

- 5:05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5 엄광석의 SBS 전망대(1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엄광석의 SBS 전망대(2부)
- 8:00 SBS 뉴스레이더
- 8:30 손범규의 스포츠브리핑
- 8:50 라디오 웰빙한방
- 9:05 손숙 · 김범수의 아름다운 세상
- 11:05 설운도의 차차차

PM

- 12:00 정오 종합뉴스
- 12:20 배철수 · 전영미의 와와쇼



- 2:00 SBS 뉴스라인
- 2:20 이택림 소찬휘의 라디오천하
- 4:05 DJ 처리와 함께 아자! 아자!
- 6:00 저녁 종합뉴스
- 6:10 김홍국 ·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쇼
- 8:00 SBS 8 뉴스(TV수중계)
- 8:30 이봉원의 으랏차차 라디오
- 10:05 유리상자의 뷰티플레이즈



AM

- 0:05 서민정의 기쁜우리 젊은날
- 2:00 김지연의 뮤직 토피아
- 4:00 김정일의 쿵쾅! 노래는 트로트

Power FM 107.7MHz

月~日

AM

- 5:00 송영길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이혜승의 모닝 익스프레스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 11:00 그대 곁에 오미희입니다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이현우의 뮤직라이브
- 4:00 허수경의 가요 풍경
-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8:00 장근석의 영 스트리트
- 10:00 박용하의 10!10! 클럽

AM

- 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 2:00 남궁연의 고릴라라디오
- 3:00 이병희의 사운드 오브 뮤직
- 4:00 이현경의 예스터데이

특별기획 <그린로즈>를 보고

미스터리와 스릴러, 그리고 멜로의 멋진 만남



가시에 찢린듯 마음이 아팠죠

3회를 보는 내내 울었습니다. 고수 씨의 열연에 가슴 뜨거웠고, 다해 씨의 눈물에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단 하루라도 자유를 주고자 자살을 택한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접한 고수 씨의 연기는 가히 명장면이라 할만 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울부짖는 그가 안쓰러워 저 역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하는 고수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숨죽이며 오열하고 강가에 유골을 뿌리던 정현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연기에 신들렸습니다.

- 윤소진(jsj910009)

영혼의 닭고기수프가 되어주길

지난 달 <SBS 매거진>을 통해 접했던 "고전이 갖는 생명력은 인간 군상의 모습, 그 삶의 본질 등을 근원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던 감독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이 드라마가 놀랍도록 신선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벼움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김수홍 감독님은 지난 5년간 기획하고 생각해 오셨다는 복수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게죠.

눈물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지요.

내가 아닌 정현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우는 정현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심정이 바로 고전의 플롯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기간에도 감독님이 준비하신 것을 맘껏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마십시오. 시청자들은 작품다운 작품을 원합니다. 어떤 기자분이 쓰신 것처럼 새로운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그런 드라마를...

- 권순자(jajat)

고해 커플

고수 씨는 희망과 절망, 밝음과 어두움... 여러가지 대치되는 이미지를 함께 떠오르게 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진짜배기 배우가 될 사람이라는 강한 예감이 옵니다. 또한 이다해 씨는 모든 여배우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타고난 듯 싶습니다. 청순가련의 이미지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순가련형 스타의 계보인 한혜숙·장미희·심은하 씨의 매력을 섞어놓은 듯한 선고운 이미지 잘 관리하셔서 부디 대형 스타로 발돋움하시길 바랍니다.

- 정용규(create9345)

모처럼 날 흥분시키는 드라마

드디어 만났네요. 다음 회가 너무 기다려져서 예고편만 자꾸 돌려보게 되네요. 교도소 창 밖을 훑어저러 바라보는 정현의 눈은 너무도 강렬해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네요. 자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는 정현의 모습, 처절한 몸부림으로 탈옥까지 감행하는 정현의 모습...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영화를 보는 듯해서 무아지경에 빠져드는 드라마... 저는 지금 주말만 기다리고 있네요.

- 이은주(ejee1119)

부디 초심을 잃지 말기를

<그린로즈>의 감점은 돋보이는 고수의 연기와 탄탄한 조연들, 그리고 이다해의 신선함에 있다. 내 용 면에서도 역시 참신함이 느껴지는 새로운 이미지가 단연 돋보인다. <그린로즈>는 초심을 잃어서는 절대 안된다. 퓨전 컬트의 요소를 차용한 추리식의 산뜻한 화면, 스릴이 느껴지는 음악, 이런 요소들을 놓치면 안된다. 기존의 국내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시도들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기를 바란다. 조금의 차이가 큰 빛을 발하는 것! <그린로즈>의 대박을 기원한다.

- 김경희(dayformight)

네오컬트를 향하라, <그린로즈>!

내게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들. 첫번째, 초반의 자동차 추격 신과 탈옥 장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자극적인 스피드가 느껴졌다.

두 번째, 정현과 수아가 오두막에서 로맨스를 나누는 장면. 수아의 발을 만져주는 정현의 눈빛과 손놀림 하나하나의 거의 예술의 수준이었다. 이 장면에서 난 남녀가 느끼는 화학반응을 어느 러브신 못지 않게 느꼈다.

세 번째, 정현의 운명이 가시밭길이 되는 시발점이기도 한 그 장면, 천진하게 야근을 하는 정현과 그를 바라보는 현대의 아버지고 냉정한 모습,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는 화면 전개 등. 여태 보아왔던 드라마들과는 사뭇 다른, 어찌보면 다분히 실험적이고 여러가지 장르를 혼합해놓은 컬트적인 느낌도 받게 된다.

이왕지사 그처럼 참신한 의도와 기획,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어 냈으니 더욱 분발해서 드라마 사상 큰 획을 긋는 작품으로 남게 되기를. 21세기는 문화 혼합과 장르혼합의 시대라고 한다. 미스터리와 스릴러, 그리고 멜로가 멋지게 어우러진 네오컬트(Neo Cult), 그 지향점을 나타내주는 드라마가 되길...

- 장혜진(pizzolla1210)

지 금 S B S 는 ...

■ ■ ■

〈환경의 역습〉과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 제17회 한국방송 프로듀서상 작품상 수상

지난 3월 1일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열린 '제17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시상식에서 SBS는 작품상 부문에서 〈환경의 역습〉(연출 박정훈)이 TV 시사 다큐멘터리 부문상을,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박스〉(연출 이선아)가 라디오 음악오락 부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출연자상 부문에서는 전 국민에게 술하게 회자되며 개그 프로그램의 새 지평을 연 〈웃찾사〉 팀이 코미디언 상을, 〈그것이 알고싶다〉 MC 정진영이 TV 진행자 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작 부문에서 〈토지〉의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SBS 아트텍의 박영기 차장이 미술상을 수상했다.



■ ■ ■

〈환경의 역습〉과 〈홍소장의 가을〉, 방송위원회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3월 11일,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방송위원회 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SBS는 2004 신년 대기획 다큐 〈환경의 역습〉이 우수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 창사 특집 드라마 〈홍소장의 가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2004년 신년 대기획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환경의 역습〉(연출 박정훈)은 도시공간 속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반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인식 전환과 실천의 중요성을 제시한 프로그램. 유해물질로 가득한 '새 집'의 위험요소를 사례별로 분석하여 환경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도시환경의 제요소, 수은과 항생제 등 약물 남용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위한 대안제시에 주력한 점이 돋보이며, '새집증후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 해 창사특집 드라마로 방송된 〈홍소장의 가을〉(극본 김수현·연출 이종수)은 경제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가족의 현주소와 실직과 소외의 아픔에 고통받는 가장의 위기를 진지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중견 탤런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안정감 있는 연출이 어우러져 시청자의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 ■ ■

안국정 SBS 사장,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개최

3월 17일 SBS 안국정 사장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언론사 기자 20여 명이 초청된 가운데 열린 이 간담회에서 안국정 사장은 “방송사 CEO는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자신의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시청자의 의식의 흐름을 좇아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시청자에게 유해한 역할이 아닌 맑은 공기를 쉼이 한다. 시청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익성 강화와 효율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안 사장은 취임 후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지상파 DMB 신청을 비롯한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 회사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SBS 방송의 공익성은 보도의 경우 ‘정론’, 드라마는 ‘완성도’, 교양 프로그램은 ‘메시지’ 또는 ‘컨셉트’로 장르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사장은 올 7월께 선보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SBS 스페셜>에 주목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미 편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작위원회가 구성되었다. <SBS 스페셜>은 보도, 교양, 외주, 지역민방 등 4개 주체가 한데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영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 사장은 “방송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책임지고 효율적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정의했으며 “SBS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초일류 방송사로 도약하지 못하면, 5년 혹은 10년뒤 SBS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새로운 방송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CEO로서 위기의식과 각오를 피력했다.

끝으로 안 사장은 ‘천시(天時)도 지리(地利)도 인화(人和)만 못하다’는 맹자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경영철학의 기초에 대해 설명했다.



■ ■ ■ ■

SBS 아나운서팀, <사랑해요! 우리말> DVD 종교교에 전달

SBS 아나운서팀이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서울시내 655개 중·고교에 <사랑해요! 우리말> DVD를 전달했다.

날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리고자 SBS 아나운서들이 차별화된 드라마식 구성으로 과감한 연기(?)까지도 불사해 제작한 이 DVD는 그동안 TV를 통해 방송되며 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귀중한 정보원이 되어온 프로그램을 모은 것이다.

재미와 유익함이 가득한 이 DVD가 사이버 언어에 몰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느끼게 하는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SBS 는 ...

SBS,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자로 선정

SBS가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DMB) 사업자로 선정됐다. 방송위원회는 3월 28일 전체 회의에서 지상파 DMB 허가 추천 법인 선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6개 사업자를 발표했다.

지상파 TV 사업자군에서는 KBS·MBC·SBS 3개 방송사가, 비지상파 TV 사업자군에서는 KMMB·한국 DMB CBS·YTN DMB 등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SBS는 1천 점 만점인 평가 점수에서 846.20점으로 MBC(855.4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DMB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방송위원 1인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와 청문을 실시해 결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방송위원의 허가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에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지상파 TV 사업자 가운데 최소한 2개사는 5월 중순께, 비지상파 TV 사업자 3개사는 하반기에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래 전부터 DMB 관련 기술에 투자를 해온 SBS는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보는 라디오(Visual Radio)' 방송 모델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보는 라디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목동 SBS 본사 1층 로비에 지상파 DMB 컨소시엄 체험관을 개관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선보여왔다.

SBS 지상파 DMB 채널은 SBS 직영으로 TV, 라디오, 데이터 채널 각 한 개씩 방송하며 교통방송, 경기방송에 라디오방송 채널 각 한 개, 한겨레신문과 LG텔레콤에 데이터방송 채널 각 한 개씩을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SBS 지상파 DMB는 공익성 강화를 통해 다른 채널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낮 시간대에는 매시간 뉴스를 편성해 뉴스 정보를 제공하고 미아찾기, 미술관 특집 등 쌍방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라디오 방송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보는 라디오(Visual Radio)' 기술을 서비스한다. '보는 라디오'에서는 음악방송과 함께 음악 관련 사진을 슬라이드쇼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